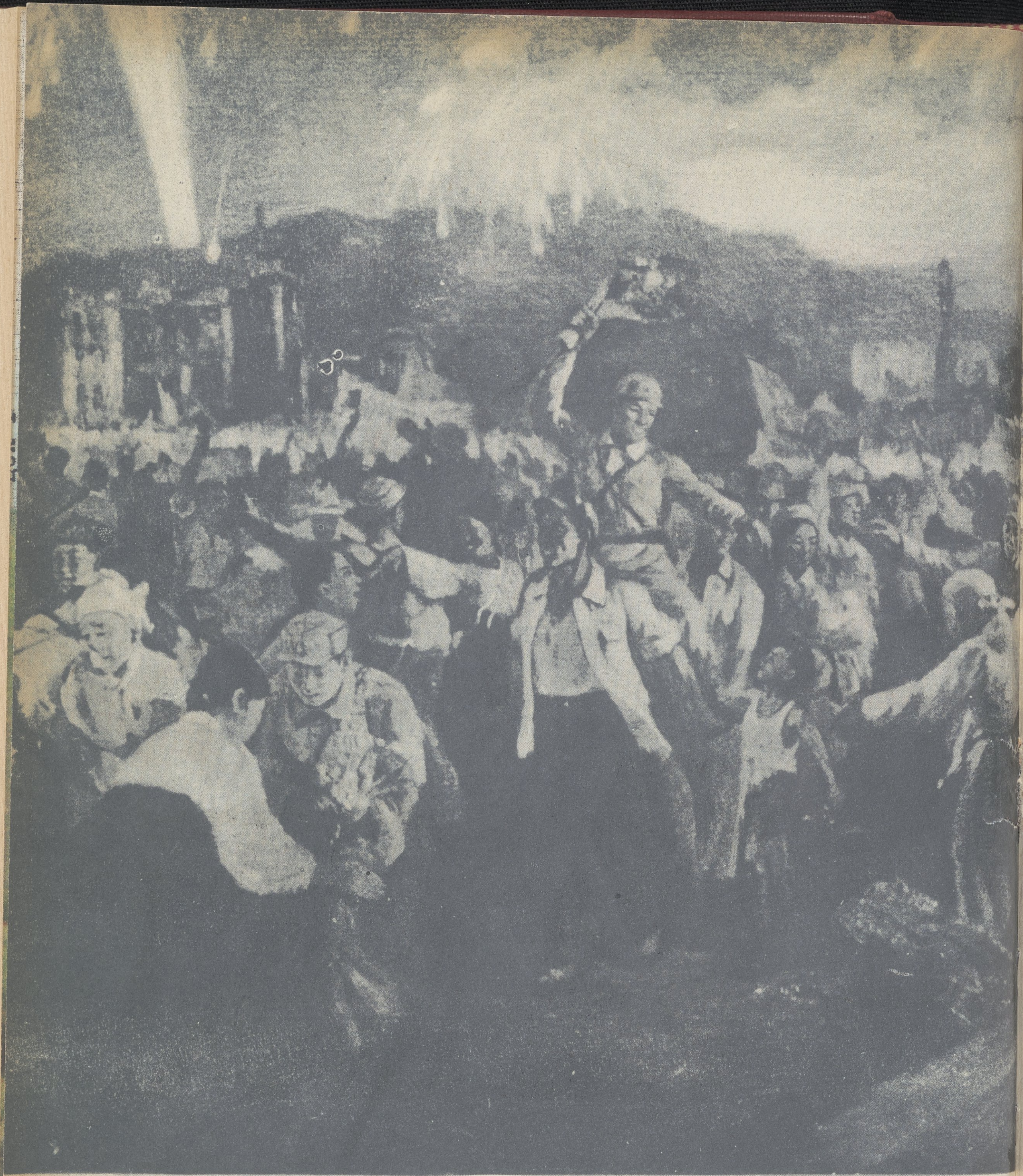


청년생활

7
1963



승 리 (유화)

전 인 호 합작
리 맹 림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잡지

청년생활

7
(166)
1963

차 례

표지, 1면. 《노을 비낀 전야》 어 순우 그림.

권두언

청년들이여, 새 결의를 굳게 다지자!

—민청 제 5 차 대회를 맞이하면서—

오는 10월에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제 5 차 대회가 열린다. 민청 제 5 차 대회는 우리 나라 청년 운동 발전에서와 청년들의 생활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사변으로 된다.

대회는 김 일성 동지의 령도 밑에 조선 청년 운동이 달성한 거대한 승리와 당 주위에 철석 같이 통일 단결된 청년들의 위력을 다시 한 번 시위하게 될 것이다.

대회는 또한 민주 청년 동맹을 더욱 공고 발전시키며 우리 당 제 4 차 대회가 준 강령적 과업 실행과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 위업을 촉진하기 위한 투쟁에서 청년들의 역할을 가일층 제고하는 중요한 계기로 될 것이다.

민청 제 4 차 대회가 있은 때로부터 7 년이 지나 갔다. 장구한 력사 발전에서 7 년이란 극히 짧은 한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이 기간에 수백 수천 년에 비할 수 없는 심각한 변혁들이 일어 났다. 사회주의 혁명 앞에 나선 모든 복잡한 과업들을 승리적으로 해결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이미 사회주의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시기에 들어 섰다.

이 기간 민주 청년 동맹의 강화 발전에서와 청년들의 처지에서도 거대한 전변이 일어 났다. 당의 후비대인 민주 청년 동맹은 오늘 당이 주는 그 어떤 어려운 임무라도 능히 감당 수행할 수 있는 강유력한 전투적 대오로 자랐으며 전체 청년들은 당과 김 일성 동지의 주위에 한마음 한뜻으로 더욱 굳게 뭉쳐 그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당의 전사로, 혁명의 역군으로 자랐다.

우리 당에 의하여 개척된 민족적 대번영기에 사는 우리 청년들은 오늘 무한히 행복하다.

반만년의 조국 력사에서 이 나라 젊은 세대들이 그 어느 때 오늘처럼 남부럽지 않은 행복한 생활을 누려 본 적이 있었던가, 그 어느 때 조선의 젊은이들이 오늘과 같이 남에게 수모와 천대를 받지 않고 조국의 영예를 온 누리에 떨치면서 《나는 조선 청년이다.》라는 다함 없는 긍지를 가져 보았던가!

오늘 우리 나라의 모든 청년들은 맑은 아침의 나라 조선에 태여났고 3천리 금수 강산에서 생을 누리며 훌륭한 사회주의 조국의 륭성 발전에 자기의 청춘을 바치는 더 없는 영광을 온 세상에 소리 높이 자랑하고 있다.

조선 청년들의 이 모든 영예와 긍지는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시며 민청의 창건자시이며 지도자이신 김 일성 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육친적 배려를 떠나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김 일성 동지께서는 실로 조선 혁명의 전 행정에서 항상 청년들의 오늘과 래일의 운명에 대하여 커다란 배려를 돌려 주시였으며 청년 운동의 정확한 투쟁 방향과 방도를 명시하고 내내 승리와 행복에로 이끌어 주시였으며 또 이끌어 주고 계신다. 이 행복과 영예와 긍지를 안은 우리 나라 전체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오늘 민청 제 5 차 대회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대중적 투쟁의 거세찬 불'길을 일으키고 있다.

민청 제 5 차 대회를 맞이하여 당과 수령 앞에, 조국과 인민 앞에 더욱 큰 로력적 선물을 드리는 것은 모든 청년들의 계급적 의무이며 애국적 행동이다.

전체 청년들은 무엇보다도 금년도 국가 계획을 민청 제 5 차 대회 전으로 완수하기 위한 세찬 증산 경쟁 운동의 불'길을 일으켜야 한다. 그리하여 당이 제시한 10 대 과업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더욱 어렵고 힘든 모퉁이를 담당하여 용감하게 뚫고 나가며 종업원 1인당 생산액을 2 배 이상 높이기 위한 투쟁에 앞장 서 나가야 한다. 청년들은 전면적 기술 혁신 운동의 전초에서 모범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전국 청년 사회주의 건설자 대회에서 김 일성 동지께서 교시하신 바와 같이 기술 혁명의 선봉에 서야 할 사람은 바로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하며 지식과 문화를 소유한 우리 청년들이다.

청년들은 민청 제 5 차 대회를 맞이하여 학습 열의를 더욱 높이며 자기의 기술 기능 수준을 한 급 이상 높이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보수주의, 소극성과의 투쟁을 더욱 강화하며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더욱 발휘하여 대회 전으로 모두가 한 가지 이상의 창의 고안 합리화 안을 제기하며 선진 기술과 선진 작업 방법을 도입하도록 모든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야 한다.

청년들은 또한 설비를 적극 애호 관리하고 부속품 생산을 선행시키며 기계 설비들에 대한 점검 보수 체계를 더 잘 확립하고 《모두가 운전공, 수리공》이 되기 위한 운동, 《붉은 기대 쟁취》 운동에 적극 참가함으로써 생산을 정상화하며, 있는 설비, 있는 로력으로써 더 많이 생산하는 모범적 역할을 높여야 한다.

전체 청년들은 나라의 젊은 주인이며 살림'군이라는 립장에 서서 한 개의 못, 한 오리의 실이라도 아껴 쓰며 없는 것은 찾아 내고 부족한 것은 만들어 내며, 폐기 폐잔물을 수집해서 재생 리용하는 애국적 운동을 광범히 전개하여야 한다.

민청 중앙 위원회 제 16 차 전원 회의 확대 회의는 민청 제 5 차 대회를 맞이하여 증산 경쟁 운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의 도시와 마을을 더욱 아름답게 꾸리기 위한 대중적 투쟁을 힘차게 전개할 것을 전체 청년들에게 호소하였다.

청년들은 우리의 사랑하는 금수 강산을 록음이 우거지고 백화만발한 락원으로 꾸리며 생활을 문화적으로 꾸리기 위한 사회적 투쟁을 한층 강화하여야 한다.

청년들은 우리 조국의 장래 운명을 두 어깨에 걸머지고 나아가야 할 앞날의 주인공들이다. 그러므로 철저한 로동 계급의 전사로 지, 덕, 체를 겸비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 형의 인간으로 준비하는 것은 청년들의 제 일차적 의무로 된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확고한 계급 의식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전체 청년들은 우선 반제 사상으로 무장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철천지 원쑤인 미제 침략자들과 그의 비호 하에 재생된 일본 군국주의자들을 증오하며 반대하는 계급적 립장을 끝까지 고수할 줄 알아야 한다. 이와 함께 수정주의의 반동적 본질과 계급적 근원을 깊이 인식함

으로써 우리의 계급 의식을 마비시키며는 현대 수정주의의 그 어떤 사소한 침습과 부르죠아 사상의 영향도 결코 용허하지 말며 양풍과 일체 불건전한 생활 습성의 발현도 제때에 견결하게 반대 배격하여야 한다.

전체 청년들은 반동적 부르죠아 통치 제도의 본질과 부패성을 잘 알므로써 언제나 우리의 부모들이 다시 일본 제국주의 침략자들과 지주, 자본가들의 억압 밑에서 신음한 고난의 력사를 잊지 말며 옛 제도를 복구하려는 그 어떤 계급적 원쑤들과도 타협함이 없이 투쟁할 줄 아는 견결한 혁명 정신을 소유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 애국주의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함으로써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고 우리 나라의 유구한 문화 전통과 혁명적 전통을 적극 계승 발전시키며 한 그루의 나무와 꽃송이도 사랑하며 정성껏 가꾸어야 한다. 특히 온갖 민족 허무주의와 사대주의 경향과 교조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주체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며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더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청년들은 또한 공산주의 도덕 품성을 더욱 배양하며 집단주의 사상을 발양하는 데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한다.

청년들은 누구나 다 나라의 알뜰한 살림'군이 되며 믿음직한 젊은 주인이 되여 국가와 인민의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국가의 법과 사회 질서를 자각적으로 준수하며 례의 도덕이 밝고 외모가 단정하고 생활을 문화 위생적으로 꾸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항일 빨찌산의 영웅적 투쟁과 업적은 우리 청년들을 계급의 전사로, 공산주의적 도덕의 소유자로 키워 주는 정신적 량식으로 행동의 구감으로 되고 있다.

전체 청년들은 우리 당의 혁명 전통을 더욱 심오히 연구 체득함으로써 항일 빨찌산의 고귀한 혁명 정신과 고상한 도덕 풍모를 자기들의 뼈와 행동의 지침으로 만들며 그것을 매일 매 시각 자기의 생활과 투쟁 속에서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민청 생활은 민청원들의 정치 사상적 수양과 조직적 단련을 의미한다.

청년들은 민청 조직 생활이 가지는 의의를 옳게 인식하고 규약 학습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규약 상 의무와 조직의 위임 분공을 자각적으로 집행하며 민청 생활 총화에 높은 정치 사상적 준비를 가지고 참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모든 청년들이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본질과 그 우월성을 파악하고 이 운동에 적극 참가함으로써 생산에서의 집단적 혁신과 함께 특히 서로 돕고 이끌어 모두가 당의 충직한 아들딸로 되기 위한 대중적 인간 개조 사업을 한 단계 더 높이 올려 세워야 한다.

오늘 우리는 국내 국제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긴장된 환경에서 사회주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전체 청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당의 사상과 혁명 전통으로 확고히 무장함으로써 당'적 사상 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며 자력 갱생의 기치 높이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다른 한 손에는 마치와 낫을 들고 천리마의 진군을 더욱 재촉해야 한다.

모두다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더욱 철석같이 단결하여 민청 제 5 차 대회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로력적 성과로 맞이함으로써 당의 후비대의 위력을 남김 없이 시위하자!





삼도구에서의 적군 와해

☆ 김 자린 ☆

1936년 초겨울에 우리 부대가 무송, 림강 일대에서 파동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에 있은 일이다.

당시 우리가 림시 주둔하였던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삼도구 치기에 위만군 1 개 대대가 유격대에 대한 퉁기 <토벌>을 떠벌리면서 새로 기여 들었다.

정찰에 의하여 우리는 이 곳에 기여 든 적들을 와해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가지게 되였다. 그것은 오래 동안 위만군에서 복무해 온 대대장이 일본놈 지도관에 대하여 반감을 품고 있다는 것과 또한 대대 내 장교놈들 대부분이 이미 유격대에 의하여 타격을 받고 겁을 먹은 놈들이므로 유격대가 나타났다는 말만 들어도 눈이 둥그래진다는 점들이였다.

이러한 약점들을 리용하여 우리는 놈들을 반변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던 차에 때마침 일본놈 지도관이 출장 중에 있다는 것과 놈들에게 공급되는 동복이 방금 도착했다는 것을 알게 되였다.

우리는 이 기회에 위만군들을 반변시킴으로써 놈들의 <토벌> 기도를 파탄시키는 동시에 동기 피복을 해결할 것을 계획하였다.

지휘부에서는 적들을 포위하고 함화 공작을 강력히 들이댄다면 능히 와해시킬 수 있다고 타산했다. 그리고 만약 적들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력으로 소탕할 것을 계획하고 만단의 전투 준비를 갖추었다.

최현 동지의 인솔 하에 우리가 적들이 있는 삼도구 치기에 은밀히 도착한 것은 날 밝을 무렵이였다.

좁은 골짜기에는 여섯 채의 적 병실이 한 줄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자리 잡고 있었다. 골짜기의 삼 면은 경사가 급한 산'줄기로 둘러싸여 있었고 남쪽만 틔여 있었다.

지휘부 성원들과 기본 주력은 병실 후면 서쪽과 북쪽 산'등성이에 매복하고 일부는 적의 병실이 발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동쪽 산'등성이의 유리한 곳을 차지했다. 그리고 남쪽으로 열린 골짜기 어귀에는 차단조를 배치하였다.

그 때 나는 호장 (나팔수 책임자)으로서 척탄통수를 겸하고 있었는데 내가 배치된 동쪽 산'등성이에서 적들의 병실까지의 직선 거리는 300~400 메터에 불과했다. 이렇게 우리는 적들의 병실을 포위함과 동시에 림강으로 통하는 놈들의 전화선을 끊어 놓았다. 그리고 지휘부에서는 다섯 곳에 나팔수들을 각각 두 명씩 배치했다.

만단의 전투 준비를 갖춘 우리는 이른 아침에 행동을 개시하였다. 우리는 우선 적의 병실을 향하여 일제히 구호를 웨쳤다.

«<만주> 병사들이여! 당신들은 4 면 포위되였다. 무기를 바치고 투항하라!»

《요창 부요밍!》(총을 바치면 죽이지 않는다!)

웨침 소리는 산'골짜기를 뒤흔들며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그러자 적들은 병실 문을 차고 나오며 소란스럽게 날뛰기 시작했다. 어떤 놈들은 무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떠들기도 하고 어떤 놈들은 되는 대로 총을 쏘면서 발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구호를 웨쳤다.

《<만주>병사들아! 당신들은 이미 포위 속에 들었다. 헛된 저항으로 죽음을 재촉하지 말고 우리에게로 넘어 오라!》

우리의 구호는 놈들이 쏘는 총'소리를 압도하면서 산'골짜기를 뒤흔들었다. 이와 함께 적들로 하여금 우리가 포위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 똑똑히 알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일제히 위협 사격을 진행했다. 얼마 간 계속 되던 우리의' 위협 사격이 멎자 적들이 무질서하게 쏘던 총'소리도 차츰 뜸해지고 소란하던 적 병실도 조용해지기 시작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는 또다시 구호를 웨쳤다.

또다시 적들은 아래 쪽 병실에서 웃쪽 병실로, 웃쪽 병실에서 아래 쪽 병실로 올리 뛰고 내리 뛰면서 쩔쩔 매고 있었다.

나는 이런 때 공격 나팔을 힘껏 분다면 적들이 더욱 당황할 것 같이 생각되였다. 전투 계획에도 적들이 당황하여 날뛰는 때에 지휘부의 신호에 따라 사방에서 나팔을 불게 되여 있었다. 그래서 나는 나팔을 불라는 신호를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며 지휘부 쪽을 계속 살피고 있었다.

잠시 후 지휘부가 차지한 곳에서 우리 대원 한 명이 불쑥 나타났다. 나는 입에 나팔을 대고 그를 주시하였다. 그런데 그가 신호를 전달하기 위하여 나선 줄 알았더니 신호는 하지 않고 적 병실을 향하여 곧바로 내려 가고 있었다. 찬찬히 살펴 보니 그는 지휘부의 련락병이였다. 그가 무엇 때문에 단독으로 적의 소굴로 들어 가는지 나는 영문을 알 수 없었다.

잠시 후 비로소 나는 그가 적들을 와해시키기 위하여 놈들의 속으로 들어 간다는 것을 짐작하게 되였다.

련락병이 적의 병실에 거의 다달았을 때에 갑자기 자지러진 총'소리가 나더니 련락병이 앞으로 꺼꾸러지는 것이였다. 나는 저도 모르게 적탄통을 확 그러잡고 지휘부 쪽을 주시하였다. 그러나 지휘부 쪽에서는 여전히 딴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련락병은 나무'가지를 거머쥐고 몸을 일으키더니 한쪽 다리를 절면서 다시 걸어 가는 것이였다. 그는 몇 발'자국 걷다가는 주저앉고 앉았다가는 다시 걷기를 거듭하던 끝에 적 병실 문앞에 이르러 또다시 넘어지는 것이였다. 그것을 보는 나의 가슴 속에서는 불'덩이 같은 것이 울컥울컥 치밀어 올랐다. 우리는 원쑤에 대한 분노를 담아 또다시 구호를 웨쳤다. 련락병은 다시 일어 났다. 그리고 적 병실을 향하여 크게 소리 치는 것이였다.

잠시 후 적 병실 문이 열리더니 장교 한 놈이 나왔다. 우리는 긴장된 속에서 그 놈의 거동을 살폈다. 이 때 련락병이 또 무어라고 웨치는 소리가 들려 왔다. 적 장교놈은 그 말에 흠칫 놀란듯 한 걸음 물러 섰다가 급히 손'짓을 하며 병실로 들어 가는 것이였다. 간신히 몸을 일으킨 련락병도 그 뒤를 따라 들어 가는데 그 모습은 멀리서도 자못 미더워 보였다.

련락병이 적 병실로 들어 가자 총을 둘러 멘 적 졸병놈들이 우루루 뛰여 나오더니 각기 다른 방향으로 사라지는 것이였다.

놈들이 정찰을 파한 것이 분명했다. 그 중 두 놈은 우리가 있는 쪽으로 살금살금 숨어 오는 것이였다. 이윽고 그 놈들이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 섰을 때 우리 동무들이 여기저기서 갑자기 큰 소리로 웨쳤다.

《왜놈의 총을 내던져라! 그래야 산다!》

우리의 웨침 소리에 기급한 놈들은 풀 속에 납작 엎드렸다가 황급히 돌아 서더니 남쪽 길을 따라 정신 없이 내뛰는 것이였다. 그러나 그 쪽에서도 또 우리 동무들이 큰 소리를 치자 그 놈들은 어쩔 바를 모르다가 급히 병실로 뛰여 들어 가고 말았다.

북쪽 산'골짜기로 뛰여 가던 놈들도 우리 동무들이 이렇게 소리 치는 통에 더 가지 못하고 돌아 서 버렸다. 놈들이 돌아 가서 빈틈 없는 우리의 포위 상태를 보고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 놈들을 쏘지 않고 쫓아 보냈던 것이다.

련락병이 무엇 때문에 적 병실에 들어 갔으며 어떻게 공작 임무를 수행했는가를 나는 후에 들어서야 알게 되였다.

우리의 포위 속에 든 적들이 불안과 공포에 싸여 우물쭈물한다는 것을 포착한 지휘부에서는 적들을 더 손 쉽게 와해시키기 위하여 련락병을 파견했던 것이다.

련락병이 적의 대대 지휘부 문앞에 다가가자 적 장교놈이 나와서 그를 데리고 들어갔다. 련락병은 침착하고 태연한 태도로 방안에 들어 섰다. 방안에는 대대장, 부관놈과 기타 몇 명의 위만군들이 있었는데 그 놈들은 어쩔 바를 모르고 있었다.

잠시 후에 대대장 놈은 열기 오른 눈으로 련락병을 쏘아 보며 권총을 뽑아 들고 웨쳤다.

《왜 왔는가? 무엇을 요구하는가? 어느 부대인가? 몇 명이나 되는가?》

그러나 그 놈의 입술은 푸들푸들 떨리고 있었다. 그 놈의 말투로 보아 우리가 조선 인민 혁명군이라는 것을 아직 똑똑히 모르는 것 같아서 련락병은 《권총을 놓고 점잖게 말을 하자. 우리는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는 항일 유격대다. 나는 당신들에게 왜놈의 무장을 벗어 던지고 민족적 량심을 찾고 생명을 구하도록 하라는 우리 지휘부의 권고를 전하러 왔다.》라고 힘차게 말했다.



그러자 흥분하여 씨근거리던 대대장놈은 잠시 시선을 돌려 곁의 놈들을 보더라는 것이다. 놈들이 동요하고 있음이 틀림 없었으나 대대장놈은 체면 상 허세를 부리며 손에서 총을 놓지 않고 련락병에게 을러댔다.

《무슨 말인가? 할 말이 있으면 어서 하라!》

련락병은 태연 자약하게 《나는 당신들을 위해 여기에 들어 온 사람이다. 그런데 왜 당신들은 아무런 무기도 가지지 않고 오는 사람에게 총질을 하는가. 만일 내가 여기서 오래 지체하거나 또는 약속한 시간이 넘도록 돌아 가지 못하면 어떤 일이 있으리라는 것을 당신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내가 돌아 가기로 약속한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총을 놓고 점잖게 말을 하겠는가?

아니면 헛된 죽음을 당할 터인가?》라고 들이댔다.

련락병의 말을 들은 대대장놈은 그 어떤 호기심에 사로잡힌 듯한 시선으로 졸병들에게 그를 치료해 주라고 하였다.

상처를 치료 받은 다음 련락병은 《우리의 대부대는 지금 당신들을 사면 포위하고 투항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자 대대장놈은 《사면 포위? 허튼 말 말어, 바른 대로 대지 않으면 싹 죽일테다.》라고 하면서 련락병의 가슴에 총구를 대고 위협하더라는 것이였다. 그러나 련락병은 량 볼을 푸들푸들 떨고 있는 그 놈의 낯짝을 쏘아 보며 더욱 침착한 태도로 들이댔다.

《당신들은 나를 죽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죽는 날에는 당신과 그리고 대대 전체가 몰살되게 된다는 걸 알아야 할 것이다…》

이 말을 듣자 대대장놈은 권총을 쥔 손으로 책상을 탕 치며 소리쳤다.

《그런 말은 듣기 싫어. 묻는 말이나 대라. 대체 몇 명이나 되는가?》

련락병은 태연스레 걸상에 걸터 앉으며

《우리가 몇 명인가구? 나에게 묻지 말고 당신 눈으로 직접 보라. 골짜기를 겹겹이 둘러 싼 우리는 박격포, 기관총, 척탄통 등의 일체 화구를 지금 여기에 돌려 대고 당신들의 태도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대장놈은 그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 벽에 걸린 전화기 돌리개를 신경질적으로 잡아 돌렸으나 우리 차단조 성원들이 이미 선을 끊어 놓았기 때문에 전화가 통할 리 없었다.

대대장놈이 수화기를 탁 집어 던지는 순간 문이 덜컹 하고 열리더니 총을 멘 위만군 두 놈이 달려 들어 와 《골짜기에도, 길목에도 공산군 천집니다. 송곳 끝도 들이밀 데가 없습니다.》라고 황겁한 소리로 웨쳤다.

《듣기 싫다.》

대대장놈이 발을 탁 구르며 소리 치자 그 두 놈은 어쩔 바를 모르다가 한쪽 구석으로 가더니 말뚝처럼 서더라는 것이였다.

뒤 따라 또 문이 열리더니 위만군 한 놈이 숨을 헐떡거리며 뛰여 들어 와서 한 자리에 선 채 머뭇거렸다.

《빨리 말해라! 이 자식아!》 대대장놈이 꽥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그 놈은 눈알을 굴리면서 간신히 말을 뗐다.

《영장님, 공산군들이 어디나 다 꽉 들어 찼습니다…》

《이 놈아, 너도 그 소리냐?》 그제야 대대장놈은 손에 쥐였던 권총을 집어 넣고 실신한 듯 걸상에 주저앉더라는 것이였다. 이 때 련락병은 다시 그 놈을 향하여

《보라, 그래도 내 말이 믿어지지 않는가… 당신들은 중국 사람이 아닌가. 무엇 때문에 중국 사람으로서 중국 땅을 짓밟고 있는 일제의 앞잡이로 개죽음을 하겠는가. 우리는 당신들의 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당신들의 운명은 당신들이 취하는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강경히 말했다.

머리를 떨구고 한참이나 듣고 있던 대대장놈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 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서성거리다가 사방에서 울리는 아군의 나팔 소리를 듣자 흠칫 놀라며 《저건 무슨 나팔 소린가?》고 다급히 물었다.

공격 준비를 알리는 나팔 소리라는 련락병의 말에 대대장놈은 더욱 어쩔 바를 몰라 했다.

련락병은 이 때를 놓칠세라 《이젠 약속한 시간이 촉박했다. 이제 잠시 후이면 무서운 화력이 머리 우에 들씌워질 것이다. 이렇게 지체하다가는 당신들의 생명을 건져 낼 길이 없다. 이제는 흰 기'발을 들고 나서는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급해 맞은 대대장놈은 옆에 있는 부관을 향하여

《흰 기'발을 가져 오라는데 왜 섰는가?》라고 소리 치며 마치 준비라도 해 두었던 것을 독촉하듯이 부관놈을 쏘아 보더라는 것이다. 부관놈은 《예! 흰 기'발?!》 하고 당황하여 이 쪽 저 쪽을 뒤지더니 창문에 친 흰 천을 확 뜯어 장'대에 두 귀를 매여 대대장에게 주었다.

흰 기'발을 받아 쥔 대대장놈은 한숨을 내쉬더니 머리를 푹 숙인 채 문'가로 걸어 나왔다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적 병실 문이 열리더니 흰 기'발을 든 대대장놈이 나섰다.

—일이 뜻 대로 되는구나!—하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대대장놈을 살폈다.

그는 병실을 향하여 뭐라고 한 마디 지르더니 우리 지휘부가 있는 서쪽 산'등성이를 향하여 무거운 발'길을 옮겨 놓는 것이였다.

지휘부가 있는 곳으로 올라 갔던 그 놈은 이윽하여 흰 기'발을 든 채 다시 병실로 내려왔다.

이 때 우리는 지휘부로부터 적들이 한 시간 이내에 투항하게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우리는 긴장된 태세로 그들이 투항해 나오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대대장놈이 내려 간 후 한 시간이 지난지 이윽하도록 감감 무소식이였다. 그 놈들이 어떤 흉계를 꾸미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이였다. 우리는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여 만단의 전투 준비를 갖추고 구호를 웨쳤다.

《우리는 지체할 수 없다. 투항하지 않으면 공격하겠다.》

이 때 적들은 갑자기 총을 쏘면서 대응하여 나섰다. 순조롭게 될듯 하던 일이 틀어지는 것 같았다.

지휘부로부터 사격 명령이 하달되였다. 우리는 이미 설정된 대로 보총, 기관총 등으로 일제히 화력을 뿜었다. 이윽하여 대대장놈이 들어 간 병실에서 흰 기'발이 다시 나타났다. 우리는 일단 사격을 멈추었다.

대대장놈이 흰 기'발을 들고 나서자 다른 병실에 있던 졸병들이 줄레줄레 따라 나섰다. 그런데 맨 마지막 병실에서는 또다시 발악적으로 사격을 시작하는 것이였다.

그 놈들이 대대장의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한 지휘부에서는 나에게 그 병실에 척탄통 사격을 하라는 명령을 하달했다. 나는 곧 척탄통 좌지를 그 병실 앞 산'등성이에 옮기고 한 방 쐈다. 《꽝!》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그 병실 통마루가 부러지며 풀썩 내려 앉았다. 적 병실에서는 비명이 들려 왔다. 놈들은 더는 발악하지 못 했다.

이 때 그 병실에서 얼마쯤 올라 왔던 대대장놈이 큰 소리로 웨쳤다.

《패장이 있는가? 왜 말을 듣지 않는가. 네 놈 때문에 대대가 몽땅 녹아 나겠다. 말을 듣지 않으면 싹 죽이겠다.》

발악하고 있던 그 놈들도 한 놈 두 놈씩 대대장의 뒤를 따라 나섰다.

대대장놈은 2 렬 종대로 졸병들을 세워 가지고 아군 지휘부로 투항해 올라 왔다. 그의 앞에는 우리 련락병이 서고 있었다.

지휘부에 도착한 련락병은 적 병실에 들어가 공작한 정형에 대하여 보고했다.

전우들은 저마다 앞을 다투어 강철의 전사인 그의 손을 굳게 잡고 얼굴을 비비며 무슨 말부터 해야 좋을지 몰라 그저 가슴을 들먹이고 있을 뿐이였다.

우리는 지체 없이 위만군들의 무장을 해제하고 그들에게 우리 유격대는 조중 인민의 공동의 원쑤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는 군대라는 것과 앞으로는 일제의 총칼을 제 나라, 자기 부모들을 반대하는 길에 나서지 말고 중국 사람으로서의 량심을 가지고 살 것을 설복하였다.

이러한 해설 사업을 진행한 후 우리는 그들을 해산시켜 집으로 돌려 보냈다.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수립된 조선 혁명의 전략 전술

(2)

☆ 김 흥 성 ☆

3

혁명의 전략 전술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혁명을 통해서 수립하여야 할 정권에 관한 규정이다.

정권에 관한 문제는 혁명에서의 주되는 문제이며 어떤 정권을 어떻게 수립하며 수립된 후 그 정권이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은 그 혁명의 승패, 장래를 규정하여 준다.

김 일성 동지는 항일 무장 투쟁 시기 반제 반봉건 혁명 승리 후 즉시 로동 계급의 독재 정권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좌경 기회주의자들의 견해를 반대하고 우리 나라 혁명의 성격과 임무에 알맞는 정권 형태와 그 기능에 대한 명철한 규정을 하시였다.

김 일성 동지는 유격 근거지—해방 지구에서 인민 혁명 정부를 창설한 실천적 경험으로부터 출발하여 혁명이 승리한 후 우리 나라에 수립하여야 할 정권 형태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 각층 인민을 대표하며 그의 리익을 옹호하는 정권으로서 로동 계급의 령도하에 광범한 통일 전선에 기초한 인민 정부로 되여야 한다고 인정하시였다. 이 인민 정부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에게는 완전한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적 권리를 보장하며 극소수 반혁명 분자들에게는 독재를 실시하는 정권이였다.

김 일성 동지께서 직접 작성하신 조국 광복회 강령에는 우리 나라 혁명의 성격과 혁명 력량 배치 계획에 알맞게 혁명 승리 후 인민 정부가 하여야 할 혁명 과업을 규정하시였다.

인민 정권이 당면하게 할 일은 일제와 그와 결탁한 지주, 예속 자본가, 민족 반역자들을 타도하고 조선 인민의 민족적 독립과 근로 계급의 사회적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였다.

인민 정권은 일제와 매국적 친일 지주의 토지를 무상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하는 원칙에서 토지 개혁을 실시하며 일제와 매국적 친일 분자들의 공장, 광산, 철도, 은행 등의 전체 재산을 몰수하여 전 인민적 소유로 넘길 것을 제기하였다. 또한 인민 정권은 8 시간 로동제와 로동 보호제의 실시, 민족 자본가의 기업 활동의 보장, 사회 정치 생활에서 일제 및 봉건 잔재의 숙청, 민주주의적 교육 문화의 발전 등 민주주의적 제 과업들을 수행할 것을 제시하였다.

항일 무장 투쟁 시기 김 일성 동지께서 제시한 정권 형태와 그 기능에 대한 규정들은 로동자, 농민들을 비롯한 모든 애국적 인민들에게 나아갈바 앞길을 명확히 가리켜 주었으며 그들로 하여금 뚜렷한 투쟁 목표를 가지고 반일 투쟁에 나갈 수 있게 하였다.

4

혁명의 전략적 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술적 문제는 주되는 투쟁 형태를 규정하는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나라에서 일제 식민지 통치를 쳐부시는데 유일한 투쟁 형태는 무장 투쟁이라고 규정하시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 혁명 발전에 있어서 필연적 요구였다.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의 무장적 탄압이 악랄하게 감행되고 모든 합법적 활동의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진 조건 하에서 종래의 투쟁 방법—파업, 시위, 폭동 등에만 의거하여서는 혁명을 더는 발전시킬 수 없었다. 일제를 타도하고 혁명적 정권을 수립하며 혁명에서 승리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장 투쟁이였다. 사실 상 무장 투쟁은 적에 대한 타격력에 있어서나 자체의 조직된 힘에 있어서나 그리고 인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있어서 가장 높은 최고 형태의 투쟁 방법이다.

김 일성 동지는 당시 혁명 정세를 분석하고 대중 운동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폭력적인 투쟁 형태를 일반화하여 반일 민족 해방 투쟁에서 주되는 투쟁 형태로서 무장 투쟁 로선을 명시하시고 무장 투쟁을 조직 전개하기 위해서는 상비적 무장력에 의거하는 유격 투쟁으로 이행할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이리하여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은 1932년 4월 25일에 항일 유격대를 창건하였다. 항일 유격대는 일제를 반대하는 선진적 로동자, 농민들과 애국 청년 등 근로 인민의 아들딸들로서 조직된 조선 인민의 진정한 무장력이였으며 맑스—레닌주의적 혁명 군대였다.

김 일성 동지는 항일 유격대를 조직하고 강화 발전시킴에 있어서 그의 사명과 성격에 기초하여 인민 무력 건설의 제 원칙을 확립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무장 투쟁을 부인하고 계속 파업이나 시위 투쟁만 주장하는 우경 기회주의적 편향과 인민들의 각종 투쟁을 무시하고 무장 대오 단독으로 투쟁하려는 좌경적 편향을 격파하고 무장 투쟁을 위주로 하면서 동시에 그에 의거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인민들의 투쟁을 이에 밀접히 결합하는 데 특별한 주의를 돌리였다. 김 일성 동지는 로동 운동, 농민 운동, 청년 운동, 부녀 운동 등 각 계층 인민들 속에서 각이한 형태의 투쟁을 조직하고 지도하였으며 여러 가지 운동 형태에 따라 조국 광복회, 로동 조합, 농민 조합, 부녀회, 호제회, 반제 동맹, 반일회 등의 각이한 조직들을 결성하고 지도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상비적 무장력인 항일 유격대를 강화 발전시키는데 력량을 집중하면서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는데 심중한 주의를 돌리였다. 그리하여 동만 유격 근거지—해방 지구에는 반군사적 조직체로서 돌격대, 반일 자위대, 소년 선봉대 등이 조직되였으며 적 통치 지역에서는 생산 유격대, 로동자 돌격대 등이 조직되였다. 이러한 조직들을 통하여 혁명 군중을 교양함과 함께 군사적 훈련을 진행하였으며 전투시에는 유격대와 한덩어리가 되여 적과 투쟁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항일 무장 투쟁을 조직 전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격 근거지를 창설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일반적으로 혁명 근거지 창설 문제는 식민지 예속 국가들의 민족 해방 투쟁에서 중요한 전략적 문제로 제기된다. 왜냐 하면 반제 식민지 민족 해방 투쟁에서 적은 력량으로 강대한 적을 타승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지역에 혁명 근거지를 창설하며 혁명 력량을 육성 축적하며 그에 의거하여 혁명의 전반적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은 1932년 여름부터 공개적인 해방 지구의 형태로 유격 근거지를 창설하였으며 1936년에는 비밀 형태로 장백 근거지를 창설하고 그에 의거하여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전반적 조선 혁명 운동을 조직 지도하였다.

김 일성 동지께서 제시한 무장 투쟁 로선과 그의 구체적 방침들은 맑스—레닌주의의 전략 전술을 당시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 발전시킨 것이였으며 자력 갱생과 자위의 혁명 정신에 기초한 철저한 반제 투쟁 로선이였다.

5

항일 무장 투쟁의 전술적 단계를 다음의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1) 1932—1935년 시기—이 시기는 주로 동만의 유격 근거지—해방 지구에 의거하여 투쟁하였다.

이 시기 공산주의자들은 유격 근거지—해방 지구를 창설하고 토지 개혁을 비롯한 제반 민주주의적 개혁들을 실시하였으며 근거지 내 공청 조직들과 각종 대중 단체들을 통하여 대중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였으며 간부들을 양성하였다. 이 시기 혁명 대렬 내에 잠입한 종파 분자, 좌경 기회주의를 극복하고 혁명 대렬의 통일 단결을 실현하였다.

이 시기의 중요한 전투 행동은 주로 고정된 근거지에 의거하여 투쟁하면서 그 영향력을 점차 확대하여 나갔다.

또한 이 시기에 공산주의자들은 림시적인 협약과 공동적 전투 행동의 실행, 공작원의 파견 등의 형식으로 반일 부대들과의 통일 전선을 위하여 투쟁하였다. 적 통치 지역 내 사업에서는 주로 혁명적 로조와 농조를 통하여 산업 로동자들과 농촌의 빈농, 고농들 속에서 사업하였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는 혁명 력량을 일정하게 축적하였으며 무장 투쟁을 광범한 지역에로 확대할 수 있는 지반을 축성하였다.

(2) 1936—1940년 시기—이 시기는 주로 장백 근거지를 중심으로 무장 투쟁이 전개되였다.

이 시기 김 일성 동지는 조성된 정세와 혁명 발전의 요구에 립각하여 유격 근거지—해방 지구를 해산하고 항일 유격대를 압록강 주변의 국경 연안으로 진출시키며 우선 장백 혁명 근거지를 창설하였다. 장백 근거지는 동만의 근거지와는 달리 밀영 형태로서 류동성을 띠였다. 이 시기 항일 유격대의 전투 행동들은 장백 근거지에 의거하여 자체의 력량을 강화하면서 광활한 지대에서 대규모적인 유격 활동을 전개하여 보다 광범한 인민들 속에 혁명적 영향을 강화하였다.

이 시기 김 일성 동지는 반일 민족 통일 전선 운동을 체계화하고 더욱 광범한 군중적 기초 우에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하여 1936년 5월 5일에 조국 광복회를 창설하였으며 그의 기치 하에 인민들의 혁명 투쟁을 통일시키는 방향을 취하였다. 그리하여 조국 광복회 조직망을 장백 근거지를 중심으로 그 주변 일대로부터 시작하여 국내에까지 깊이 뿌리 박는 사업들이 진행되였다.

이 시기에 당 창건을 위한 투쟁이 반일 통일 전선 운동과 밀접히 결합되여 진행되였으며 조국 광복회 조직망을 확대하는 사업과 병행하여 힘 있게 전개되였다. 이리하여 장백 근거지 창설 이후 우리 나라 공산주의 운동과 반일 민족 해방 운동은 보다 강화 발전되였다.

(3) 1941—1945년 시기— 이 시기는 주로 소부대 유격 활동의 새로운 투쟁 전술에로 이행하였다.

제 2 차 세계 대전의 시작으로 조성되였던 새로운 국제 국내 정세의 변화와 관련하여 공산주의자들 앞에는 민족 해방의 대사변을 영접하기 위하여 혁명 력량을 보존하는 사업과 일제를 계속 타격하는 투쟁을 정확히 배합하여야 할 과업이 제시되자 항일 유격대는 대부대 활동으로부터 소부대 활동에로 이행하였다.

소부대 유격 활동의 방침은 유격 전쟁에서의 전술적 우세를 보장하게 하며 적을 계속 타격할 수 있게 하는 적극적인 조치였다.

이 시기 김 일성 동지는 항일 유격 부대들을 일제와의 최후 결전을 위한 현대전에 준비시키기 위하여 유격대의 전체 성원들을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선진적 군사 과학으로 무장한 혁명 간부로 육성하는 한편 수 많은 소부대들을 일제의 통치 지역 인민들 속에 파견하였다.

소부대들은 적들의 주둔지와 중요 경비 지점, 적 군용 렬차들을 기습하였으며 교량과 도로를 파괴하고 군수 창고에 방화하며 중요한 군사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투쟁을 진행하였다.

또한 조국 광복회 조직과 기타 혁명 단체들을 새로 조직 복구하며 대중 단체 내에 광범한 혁명 력량을 결속하는 한편 각지에 산재하여 있던 공산주의자들과의 련계를 회복하면서 인민들을 반일, 반전 투쟁에로 불러 일으켰다. 그리하여 일제 통치 말기의 가장 암담한 시기에도 인민들 속에서는 항일 유격대와의 련계 하에 무장 폭동을 일으키려는 시도들이 수 많이 일어 났다.

공산주의자들은 마침내 일제를 격멸 구축하였으며 항일 무장 투쟁의 력사적 승리를 달성하였다.

× ×

항일 무장 투쟁 시기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작성된 전략 전술의 제 원칙들은 반일 민족 해방 투쟁 시기 뿐만 아니라 해방 후 우리 나라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해방 후 우리 당은 미제 침략자들이 남반부를 강점하고 남북이 인공적으로 분리됨으로써 우리 혁명이 간고성과 복잡성을 띤 어려운 조건 하에서도 항상 정확한 길을 따라 전진하였으며 혁명을 승리에로 인도하였다.

혁명에서 거대한 승리적 전진은 우리 당에 의하여 계승된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수립된 조선 혁명의 전략 전술적 원칙들과 풍부한 투쟁 경험을 가지고 있음으로하여 가능하였다.

《나는 당신들, 청년들이 그 무엇보다 먼저 투쟁 신념, 자기의 생활 신조를 명확하게 그리고 확고하게 가지는 것이 주요하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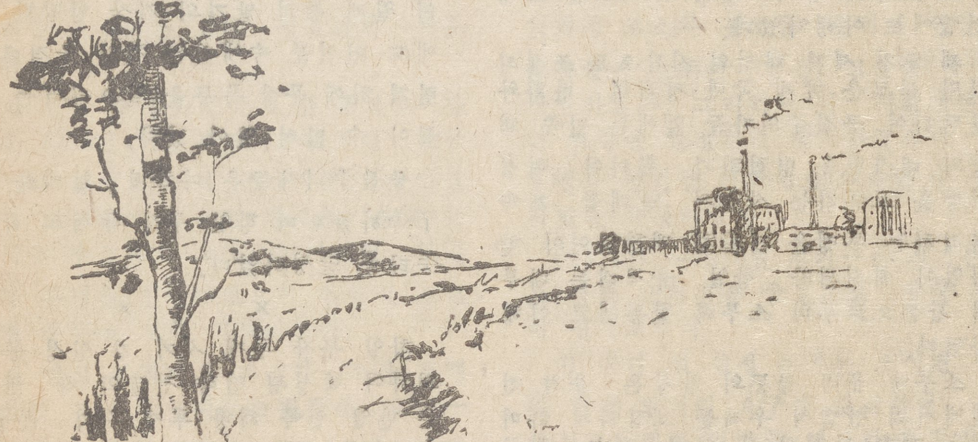
무엇을 위하여 청춘의 심장을 불태울 것이며 무엇으로써, 어떻게 조국의 미래와 자신의 리상봉을 향하여 달음쳐 나갈 것인가?

내가 말하는 투쟁이라든가 생활 신조란 곧 혁명 정신이다, 혁명 정신, 그것은 바로 맑스—레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의 실현을 위한 우리의 투쟁 신념, 우리의 생활 신조가 아니겠는가!》

(박 달)

단편 소설

살림'군



한 희 만

(1)

어스름히 깃드는 조립장 한 구석에 애티 있는 한 청년이 앉아 있었다. 오뚝한 코'마루며 가느스름히 조푸린 눈이며 볼톡하게 도두라진 불그스레한 두 볼이 어딘가 모르게 천진스러워 보였다. 창문으로 바람이 불어 들 때마다 작업모 밑으로 삐죽이 내민 앞머리카락이 외마'전에서 살랑살랑 흔들거렸다. 그는 지금 무슨 깊은 생각에 잠기여 있다.

그의 앞에는 방금 조립하다 만 소형 선반 크기만한 기계가 하나 놓여 있다.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축전지의 격자들에 연'가루 반죽을 칠하는 《연도기》인 것이다.

한 번은 그가 전지 직장에 갈 일이 있는데 거기서 숱한 로동자들이 손으로 격자에 연'가루 칠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 때 그것을 기계로 할 수 없겠는가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해 보았다. 그 날 밤 그는 고심 끝에 설계 비슷한 걸 몇 장 만들었다. 다음 날부터 교대만 끝나면 작업장 구석에서 이렇게 뚝딱거려 온 그였는데 그게 아직 제대로 되지 않아 요즘 와서는 몹시 초심하는 중이다.

그는 지금 어깨를 들썩 하고 긴 한숨을 내쉬고는 안타까운듯 중얼거린다.

《축 하나만 해결되면 되겠는데…제길 이 놈의 기곈 내가 래일 축구 시합 나가는 걸 모르는 모양이지?》

문득 복실이의 오동통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낮에 한 그의 야무진 소리도 생각 난다.

《래일은 한 번 본때를 보이라요. 학교 때처럼… 꽃다발을 준비해 놓겠어요.》

기술 학교 동창생이고 지금은 같은 작업반에서 일하는 그들은 여간만 자별한 사이가 아니다.

(쳇, 축구구 뭐구 난 밤 안으루 이 놈과 결판을 보구야 말테다.)

그는 다시 기계에 달라 붙어 골라다 놓은 축들을 이것 저것 마추어 본다. 하나도 맞는 것이 없다. 그는 씩씩거리며 연신 이마의 땀을 훔쳤다.

이 때 출입문이 드르릉 열리더니 몸체가 큰 그림자가 비껴 왔다. 이 쪽 저 쪽을 살피면서 성큼성큼 다가 오고 있는 품이 세포 위원장 아바이였다.

(또 들켰구나. 일이 재미 없게 됐는데…)

아니나 다를가 아바이는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말했다.

《거 일남이 아니냐…원 녀석두 어째 여적 돌아 가지 않았냐?》

머리를 쳐든 일남이의 얼굴에서 하얀 이가 반짝하였다.

《아바인 어째 상기 안 돌아 갔어요.》

일남이의 당돌한 대답에 아바이는 껄껄 웃었다.

《오늘 밤은 푹 쉬야 할 게 아니냐. 래일 골문을 지킬 때 졸다가 뽈이 날아 와 이마를 툭 갈기며 <문지기 어른, 고맙수다. 덕분에 또 한 번 들어 갑네다.> 하면 어쩔테냐?》

《열흘을 안 자도 문제 없어요.》

한 번 마음 먹은 일은 남이 보건 말건 수걱수걱 끝장을 내고야 마는 일남이다. 오늘 밤도 일남이를 그냥 두었다가는 또 밤을 밝힐런지 모른다.

《집에서 어머니가 기다리실라…가자.》

《수직이라구 말씀 드렸어요.》

《어서 가자는데두…》

일남이는 마지 못해 세포 위원장 아바이의 뒤를 따라 조립장을 나섰다. 길 건너 압축기실 쪽에서 우르릉거리는 소리며 빽빽거리는 구내 렬차 소리가 들려 왔다. 사람들의 통행도 다문다문해졌다.

(원 어쩌문 생김새부터 그 속통까지가 그렇게두 신통히 제 아비를 닮았는지··)

자기를 따라 오는 일남이의 자박자박하는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세포 위원장은 생각에 잠긴다.

그와 일남이의 아버지인 성규는 어릴 적부터 땅아지 동무였다. 둘이는 함께 이 공장에서 잔뼈가 굵었다.

가슴에 피 맺히던 왜놈 세월에는 함께 어득컴컴한 골목에서 일본 감독놈들을 차 구부리기도 하였고 때로는 울분을 참지 못 하여 공장 맞은 켠 둔덕에 있는 선술'집에 들려서 화'술을 나누기도 하였다.

해방 후에는 둘이 다 직심히 일하여 모범 로동자로 되였다.

50년 8월의 대폭격 날이였었다. 온 공장이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에 휩싸였었다. 땅땅 폭탄 터지는 소리며 기관총 튀는 소리가 콩볶듯 하였다.

그 때 성규는 내리 퍼붓는 불비 속을 헤치고 자기 직장으로 달려 들어 가 제 몸으로 공작 기계를 껴안고 있었다.

기총탄에 부상 당한 그의 몸에는 류혈이 랑자했으나 그가 가슴에 꽉 붙안은 기계만은 티끌 만큼도 상한 데가 없었다.

성규는 그 때 다름 아닌 자기의 팔에 안기여 숨이 졌었다. 운명을 앞두고 눈을 뜬 그는 마지막 힘을 모두어 간신히 말했다.

《철진이, 일을 더 많이 못 하구 죽는 게 원통하이……우리 일남이를…잘…돌 봐…주게…》

둘도 없이 친하던 한 대렬의 동지를 잃은 슬픔으로 하여 자기는 그 때 성규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얼마나 많은 비분의 눈물을 흘렸던 것인가.

아바이는 그 후 귀중한 전우의 아들인 일남이를 제 살붙이처럼 사랑하였다.

(아무렴 제 피'줄이야 어디 갈려구…)

아바이는 다시 흐뭇한 생각에 잠겼다.

어느덧 그들은 공장 정문을 지나 갈림'길에까지 왔다. 일남이는 아바이에게 인사하고 타박타박 제 집 쪽을 향하여 걸음을 옮겼다.

(2)

숱한 보석을 뿌려 놓은듯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거렸다. 두 볼을 볼톡해 가지고 《휴—휴—》 휘파람을 불며 걸어 가던 일남이는 세포 위원장 아바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자 슬그머니 되돌아 서고 말았다. 암만 해도 조립하다만 기계 일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다.

남달리 바지런한 일남이에게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별명이 있다.

《일남인 참 <살림'군>이야!》

하고 감탄하는 로촉들이 있는가 하면 처녀들은 이렇게 말한다.

《직장 일두 수걱수걱 잘 하지만 집엣 일두 잘 한대. 정말 그런 사람 하구 살면 녀편네 발에 흙이 묻을세라 아침 저녁 물도 길어다 주고 무연탄도 날라다 줄 거야.》

《애개개, 별소리 다 한다. 그럼 갑자기 옛날 팡만'집 아가씨 팔자되게. 난 그런 생활이 싫다 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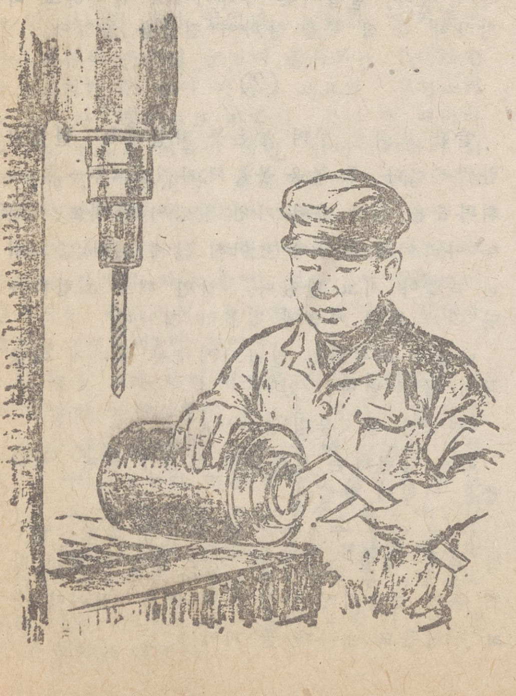
그리고는 까르르 웃는다.

아마 민청원들 속에서 기대를 제일 깨끗이 거두는 것도 일남일 게고 언제나 부속품함이 꽉 차 있는 것도 일남일 게고 기중 부지런히 뜨락을 쓰는 것도 일남일 것이다.

그가 직장에 온 후 모아 들인 파고철들만 해도 한 차판은 될 것이였다. 치차들, 축들, 호스들, 나사못들…그것은 실로 형형색색이였다. 그것도 그저 무데기로 쌓아만 두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녹을 벗기고 알뜰하게 기름칠을 해서는 따로 따로 정리해 두었다. 직장 사람들은 그것을 통삼아 일남이의 《창고》라고 불렀다.

때로는 다른 작업반 동무들까지 그의 《창고》에 무엇인가 얻으러 왔다. 그러면 일남이는 새빨간 천 뚜껑을 씌운 수첩을 꺼내 들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뒤적이다가 《아 여기에 있군, 그런 걸 요전 번 성천강 모래불에 놀러 갔다가 주어 온 일이 있어요.》 하고는 조금도 아까운 기색이 없이 선선히 내주군 하였다.

한 번은 그의 《창고》 소문을 듣고 가공 직장



동무가 찾아 왔다. 그는 일남에게서 조금만 가공하면 훌륭히 재생시킬 수 있는 부속품이며 치차류들을 술해 얻었다.

그는 일남이를 보고 넌지시 물었다.

《그런데 동무, 이렇게 정성 들여 모아 들인 걸 거저 남을 척척 내주기가 아깝지 않나?》

《내버린다구 아깝겠어요.》

《허허 한 대 맞았는걸.》

그 청년은 웃으며 머리를 긁적긁적하다가 돌아 갔었다.

일남이는 여간만 꽃을 사랑하지 않는 성미여서 자기 집 뜨락에도, 직장 앞에도 꽃밭을 만들어 놓았다. 이른 봄부터 서둘러서 거기에다 각가지 꽃씨들을 뿌렸으며 아침 저녁 물을 주고 김을 매 준다. 그의 아름다운 마음인양 꽃밭에서는 철 따라 색색 꽃들이 피여 났다. 그러면 그 꽃밭 옆에 오도카니 앉아서 그윽한 향기를 찾아 날아 오는 꿀벌들을 보는 것을 몹시 즐겨하였다.

그는 좀체로 성 낼 줄 모른다. 그러나 한 번만은 몹시 성 낸 일이 있었다. 그것도 자기와 가장 다정한 사이인 복실이와 다투었었다.

그들 작업반원들이 지난 초봄에 림시로 어느 기초 공사장에 동원되였을 때의 일이였다. 몸이 오싹오싹 떨리는 어느 음산한 날 그들은 쉴 참에 불을 피웠다. 그런데 복실이가 불무지에 집어 넣는 나무쪼각에 못이 다문다문 박혀 있지 않는가! 일남이는 마음이 언짢아졌다.

《복실 동무! 조금만…그 못을 뽑자구.》

그래도 복실이는 들은숭 만숭 그냥 불에 집어 넣고 있었다. 순간 일남에게는 이름 그대로 복실복실한 복실이의 얼굴이며 동골납작한 코까지도 더 없이 밉게 보였다. 그는 말 없이 일어 나 복실이가 불에 집어 넣은 나무쪼각을 도루 끄집어 내가지고 못을 뽑기 시작하였다. 이 번엔 복실이가 뾰로통해졌다.

《에구 별스렌 구네. 그깟 못 한둘 가지구…》

아무리 다정한 사이기로서니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여기엔 술한 사람들의 땀이 스며 있단 말이요. 착암공, 채광공, 용해공…그리구…》

《그만 하세요.》

복실이는 발끈 성을 내면서 자리를 옮겨 앉았다.

(그 땐 내가 너무 지내쳤어.)

일남이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다가도 일단 기계에 정력을 쏟기 시작하면 두 시간이건, 세 시간이건, 날이 밝건 거기에서 손을 뗄 줄 몰랐다. 그는 다시 제 《창고》에 가서 발끈 뒤집다 싶이 하여 몇 개의 축을 더 골라 내였다. 그리고는 그것을 다시 마추어 보느라고 씩씩거렸다. 잠들 줄 모르는 별들이 창문으로 기웃이 그의 일 모습을 들여다 보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일남이는 드디여 허리를 펴고 일어 섰다.

(야, 네 놈이 인제야 굴복을 했구나.)

그의 두 눈은 정말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 중 조금만 끝을 자르면 딱 알맞을 그 축을 골라 내고야 말았던 것이다. 그는 두 손으로 축을 높이 들어 올리며 마치 어린애처럼 《연도기 만세!》 하고 낮은 소리로 웨치였다. 일남이는 이런 때가 정말 즐거웠다.

이윽고 그는 그 축을 둘러 메고 가공 직장으로 달렸다. 거기서는 두 세 명의 로동자들이 오금을 꺾고 앉아서 무엇인가 만들고 있었다.

《이걸 좀 잘라 주세요.》

일남이는 메고 간 축을 내려 놓으며 부탁하였다. 그 중 고수머리 청년이 일남이를 흘금 쳐다보더니 무뚝뚝하게 말했다.

《동문 도대체 어느 직장이요? 정신이 있소? 아닌 밤'중에…》

《조금만 자르면 돼요. 부탁해요.》

일남이는 애원하듯 졸랐다.

《우리도 생산이 바빠서 휴일 전날 밤을 이렇게 새고 있단 말이요. 눈칠 보면서 들이대야 할 게 아니요.》

암만 해도 고분고분 청을 들어 줄 것 같지 않았다. 부득불 한 시간이던 두 시간이던 떼를 쓰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 일남이는 한쪽 구석에 가서 덕심 좋게 앉았다. 이 때 맞으편 쪽에서 일하던 한 청년이 얼굴에 가리웠던 용접면을 제끼고 이 쪽으로 다가 왔다. 그는 일남이를 보자 빙그레 웃으면서

《어, 이거 옛친구를 몰라 보았군. 자칫하면 배은 망덕할 번 했는데…이리 가져 오우. 동무 말마따나 제꺽 해 주지.》

언젠가 일남이의 《창고》 신세를 진 일이 있는 청년이였다.

…이윽고 축을 가공해 가지고 돌아 온 일남이는 그것을 연도기에 마추기 시작하였다.

(거 참 신통하게도 들어 맞는군.)

일남이는 홍이 나서 스위치를 눌렀다.

윙—전동기가 경쾌한 소리를 지르더니 련'이어 기대가 잘칵잘칵 돌아 간다. 볼그스레한 일남이의 두 볼에 웃음이 함빡 피여 올랐다. 얼마나 희한한 일인가! 이제는 50~60 명의 손이 하던 일을 기계가 하게 됐으니… 온 몸의 피로가 일시에 풀리는듯 하였다.

(야, 우리 직장 《살림 가구》가 또 하나 늘었구나.)

그는 걸레를 들고 새로 생긴, 아니 새로 만들어 낸 《가구》를 열심히 닦았다.

창 너머로 동녘 하늘이 푸름푸름 밝아 오기 시작하였다. 다 닦고 난 그는 잠간 쉴 작정으로 기대 옆에 오도카니 기대 앉았다.

(3)

복실이는 엊저녁 직장 민청 위원장이 퇴근하면서 일남이에게 전해 달라던 기술 도서 한 권을 가지고 그의 집으로 총총히 왔다.

《복실이냐?》

부엌에서 쌀을 씻던 일남이 어머니가 반가이 맞아 주었다.

《일남 동문 상기두 자나요?》

복실이는 웬 일인지 귀밑이 발그레해지면서 물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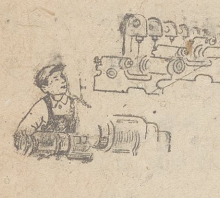
《일남인 아직 돌아 오지 않았다. 지난 밤엔 수직이라더라…》

《수직이래요? 어머니 이 책을 전해 줘요. 민청 위원장 동무가 주는 거애요.》

복실이는 선 자리에서 돌아 서 집으로 왔다. 돌아 오자'바람으로 그는 아버지에게 항의조로 이런 말을 했다.

《아버지 우리 직장에서 사업 조직을 잘못했어요.》

(26 페지에 계속)



1인 당 생산액을 높이려면

☆ 양 인 혁 ☆

종업원 1인 당 생산액이란 일정한 기간 내에 생산된 생산물의 총액을 종업원 총 수로 쪼개여 매 종업원 당 차례지는 생산액을 말한다. 그러므로 종업원 1인 당 생산액은 생산 과정에서 로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리용하였는가를 보여 주는 지표이다. 종업원 1인 당 생산액을 높인다는 것은 결국 있는 로력, 있는 설비로 보다 많은 제품을 생산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곧 로력의 긴장성을 풀고 생산의 높은 장성 속도를 계속 보장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된다. 이는 또한 원가 저하와 기업소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 방도로 되며 따라서 국민 소득의 부단한 장성을 보장하게 되고 근로자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조건으로 된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혁명적 민주 기지를 더욱 공고히 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고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종국적 승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면 종업원 1인 당 생산액을 제고하는 방도는 무엇인가?

우선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 혁신을 강력히 추진시키는 것이다.

생산 과정에 선진적인 생산 공정과 새로운 보다 능률이 높은 기계 설비를 도입하면 도입할수록 적은 로력을 들이고도 더 많은 생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계화, 자동화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며 부분적인 기계화, 자동화로부터 종합적인 기계화, 자동화에로 이행하는 동시에 선진적인 기술 공정을 부단히 도입하여야 한다. 특히 현존 설비를 현대화하며 그의 성능을 최대한으로 높이며 전기화, 화학화를 촉진시켜야 한다.

기술 혁신을 성과 있게 추진시키기 위하여서는 기술 발전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고 그를 철저히 수행하며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며 창의 고안 및 합리화 운동을 전 군중적인 운동으로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기술 혁신 운동에서 중요한 것은 로동자들의 풍부한 경험을 믿지 않는 경향과 기술자들의 기술 지식을 소홀히 하는 경향과의 투쟁을 강화하면서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 보수주의 등 일체 낡은 사상 잔재들을 불살라 버리는 것이다.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 보수주의는 새로운 기술에 겁을 먹으며 뒤'걸음질을 하게 한다. 청년들은 이를 옳게 리해하고 보수주의, 신비주의 등 새 것을 두려워하는 일체 낡은 사상 잔재와의 투쟁을 전개하면서 새로운 보다 능률이 높은 기계 설비와 선진적인 생산 공정을 도입하기 위한 투쟁의 선두에 서야 한다.

종업원 1인 당 생산액을 제고함에 있어서 현존 설비와 생산 면적의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현대적인 설비로 갖추어진 우리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추가적인 투자 없이 있는 설비로써 생산을 확대하자면 설비 리용률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 설비 리용률을 높이자면 우선 예비 부속품을 3 개월 분 이상 선행시키고 기계 설비에 대한 점검 보수를 제때에 정확히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종업원 1인 당 생산액을 제고시키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 조직을 부단히 개선하는 것이다.

생산 조직에서 중요한 것은 현존 설비, 현존 로력으로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생산 순환의 길이를 단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흐름식 생산 공정을 부단히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생산 조직에서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은 기대를 생산 공정의 순차성에 따라 배치하며 공정 간 능력의 균형을 보장하며 기업소 내 협동 생산을 정확히 조직하며 생산 준비를 철저히 갖추는 문제이다.

로동 행정 사업을 개선 강화하는 것은 종업원 1인 당 생산액을 높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로동 행정 사업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로력을 정확히 배치하고 리용하는 것이다. 로력을 배치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비생산 로력과 보조 로력을 극력 축소하여 기본 생산 부문에 배치하며 공정 간 로력 균형을 정확히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공정별로 표준 로력 조직표를 과학적으로 작성하여 작업량의 과학적인 타산과 기대 설비들의 제 특성, 작업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로동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 년령, 체질, 취미 등을 고려하여 적재 적소에 배치하며 배치된 로력을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데 주의를 돌려야 한다. 로력을 생산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서는 로동 규률을 강화하고 로동 조건과 작업 조건을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출근률을 제고하고 교대 내 로동 시간의 랑비를 근절하여야 한다. 그리고 로동 기준량의 정확한 제정과 도입 및 부단한 갱신을 위하여 자체 기준량 창조 사업을 군중적인 운동으로 광범히 전개하며 인민 생활을 통하여 그의 우월성이 확증된 작업반 우대제와 작업반 점수제를 광범히 도입하며 일'군들에게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한 분배 법칙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종업원 1인 당 생산액을 제고하기 위한 이상과 같은 제 방도들의 성과적 실현은 결국 생산에 직접 참가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사상 의식 수준에 달려 있다.

인민 대중의 창조적 적극성을 고도로 발양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로동에 대한 정치 도덕적 자각을 부단히 높이는 것이다. 인민을 위하여 일하고 자신의 로동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위한 위업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자각을 가졌을 때 로동에서 비상한 창조적 힘과 정열을 발휘하게 된다. 로동에 대한 정치 도덕적 자각, 공산주의적 태도는 혁명적 의식에서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자체의 사상 의식 수준을 부단히 높이며 특히 혁명적 계급 의식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한다. 동시에 근로자들의 문화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 기능 전습 사업을 대중적 운동으로 조직 전개하며 모두가 기술과 기계에 정통하는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끝으로 종업원 1인 당 생산액을 제고함에 있어서 중요한 방도로 되는 사회주의 경쟁 운동의 가장 높은 형태인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더욱 광범히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집단적 기술 혁신에 기초하여 생산 계획을 완수 및 초과 완수하기 위한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작업반 전체 성원들의 기술 문화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고 공산주의 도덕을 소유하며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 전통을 계승하여 자신을 공산주의자로 단련시키는 데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운동은 집단과 동지를 사랑하고 긍정적 모범에 의한 부정을 감화하는 방법으로 군중을 교양 개조하여 우리 당 주위에 튼튼히 집결시켜 사회주의 건설에서 집단적 혁신 운동을 광범히 전개함으로써 생산을 부단히 장성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종업원 1인 당 생산액을 제고하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된다.

우에서 지적한 제 방도에 근거하여 종업원 1인 당 생산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민 경제 모든 부문들에서 대안의 사업 체계와 사업 방법을 철저히 관철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대안의 사업 체계와 사업 방법이 구현될 때만이 1인 당 생산액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민청 생활

분조 생활

로 홍 재

민청 분조는 초급 민청 단체의 일부분이며 민청 분조의 활동은 초급 민청 단체의 활동과 련결되여 있다.

따라서 초급 민청 단체의 역할을 높이는 문제는 그의 일부분인 분조의 활동을 강화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민청 분조 생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청 분조가 일정한 계획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왜냐 하면 초급 민청 단체 사업 계획이 아무리 구체적으로 수립된다 할지라도 매개 분조들이 할 사업을 일일이 다 반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분조 계획은 초급 민청 단체의 월 사업 계획에 근거하여 작성하되 분조 회의나 기타 방법을 통하여 민청원들에게 알려 주며 그들로부터 보다 좋은 의견을 들어 사업에 방조를 받아야 한다.

분조 계획은 분기별로 작성할 것이 아니라 그 달에 할 일은 분조장의 수첩에 기록해 두고 그것을 집행하면 된다.

다음으로 분조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분조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분조 회의에서는 초급 민청 단체 총회 결정과 집행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과업들을 민청원들에게 전달하며 그를 옳게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한다. 동시에 분조 회의에서는 자기 분조의 사업과 생산 및 사회 생활 문제에 대한 의견들을 교환하며 나타난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한다. 분조 회의에서는 이와 같이 제기된 과업을 실행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할 뿐만 아니라 개별적 민청원들의 사업과 생활 형편에 대해서도 토의하여야 한다.

분조 회의는 주 혹은 월 몇 차 등으로 고정시킬 필요는 없으며 필요에 따라 임의의 시간에(휴식 시간, 점심 시간, 작업 전, 작업 후 등) 진행하면 된다.

분조에서는 민청원들의 민청 생활 총화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민청 생활을 총화한다는 것은 민청원들의 일상 사업과 생활에서 민청 규약 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어떻게 투쟁하였는가를 총화함을 말한다.

민청 생활 총화는 분조들로 하여금 개별적 민청원들의 준비 정도와 사업과 생활에 대하여 깊이 료해하고 그에 적응한 지도를 줌으로써 개별적인 민청원들과의 사업을 개선하고 민청 사업 수준을 더욱 제고할 수 있게 한다. 다시 말하면 민청 생활 총화를 통하여 민청 생활 과정에서 나타난 우결함을 정확히 분석하며 긍정적인 것을 조장 발전시키고 부족점을 시정시킴으로써 민청 생활을 부단히 강화할 수 있다. 또한 민청원들은 민청 생활을 총화하는 과정에서 민청 규약 상 의무를 어떻게 수행하였는가를 대중적으로 검열 받고 평가 받음으로써 민청 생활에 더 높은 긍지와 신심을 가지고 참가할 수 있으며 항상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자체의 혁명적 수양을 쌓고 일편단심 당과 혁명에 충실한 일'군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된다.

민청 생활 총화는 일반적인 분조 회의와 원칙적으로 구별하여야 한다. 즉 일반적인 민청 분조 회의는 매 시기 민청 조직 앞에 제기되는 혁명 과업 수행에로 민청원들을 조직 동원하며 분공을 조직하고 그 실행 정형을 총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면 민청 생활 총화는 매개 민청원들이 민청 규약의 요구에 비추어 자기 민청 생활을 전면적으로 총화하여 민청 조직에 보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민청 생활 총화를 진행하는 기본 단위는 분조이다. 분조들에서의 민청 생활 총화는 원칙적으로 매월 1 회씩 정기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분조 내 민청원들의 민청 생활 정형을 개별적으로 청취하고 거기에서 나타난 부족점을 고치도록 동지적 충고와 방조를 주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그러되 우선 개별적 민청원들로부터 그의 민청 생활 정형을 청취한다.

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보고하는 민청원이 자체의 민청 생활에 대하여 우점은 무엇이며 앞으로 결함을 어떻게 고치겠는가를 스스로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민청 생활 총화를 검토와 추궁과 비판의 방법으로 진행한다면 민청원들은 민청 생활 총화에 참가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생활에서 위축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단결을 약화시키고 그들의 자각성과 창발성을 마비시키게 될 것이며 결국은 건전한 민청 생활을 할 수 없게 한다. 다른 한편 민청원들은 민청 생활을 총화함에 있어서 자기 비판을 한다고 하여 매번 같은 내용을 가지고 참회식으로 비판할 것이 아니라 건전하고 진실한 자기 반성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개별적 민청원들이 자기 민청 생활에 대하여 보고한 후에 분조 내 민청원들이 동지적 충고와 방조를 준 다음 분조장이 결론을 해야 한다.

민청원들이 주는 의견과 분조장의 결론은 어디까지나 해당 민청원들의 민청 생활에서 긍정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은 응당하게 평가하여 주고 결함은 무엇인 데 그것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어데 있으며 그것을 고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친절히 가르쳐 주고 도와 주는 원칙에서 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민청 생활 총화가 따뜻한 동지적 협조와 건전한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됨으로써 민청원들의 단결을 더욱 강화하고 그들을 교양하는 훌륭한 학교로 되게 하여야 한다.

분조들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민청 생활 총화를 매월 1 회씩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외에 분조 내 민청원들의 민청 생활에서 특별한 문제가 제기되였을 경우에 필요에 따라 민청 생활 총화를 수시로 할 수 있다. 이때에는 분조 내 민청원들의 민청 생활 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중요하게 걸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조장이 자료를 종합하여 보고하고 토론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으며 몇몇 민청원들의 민청 생활 정형만을 청취하고 토론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민청 분조는 민청 생활 총화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한편·개별적 민청원들에 대한 분공을 옳게 조직하여야 한다.

민청원들에 대한 분공은 우선 자기 앞에 제기된 과업 수행에 광범한 민청원들을 인입 동원하는 데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민청원들의 실무 수준을 제고하며 그들에게 군중 공작 방법을 체득시키며 민청원들을 사상 정치적으로 훈련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분조는 일상적으로 매개 민청원들의 구체적 형편을 료해 장악하고 그에 알맞는 분공을 주며 그의 실행 정형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도와 주고 제때에 총화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분조는 자기 분조 내 민청원들 중 상급 민청 단체에서 직접 분공을 받은 동무가 있다면 그의 실행을 위해서도 도와 주어야 한다.

어머니의 아들은 살아서 싸우고 있습니다.



—저를 낳아 주었고 저의 슬픈 어린 시절을 가슴 아파하면서 그 여윈 품으로 어루만져 주신 어머니에게, 오늘도 헐벗고 굶주리며 각각으로 죽음의 위협 속에서 헤매고 계시는 남녘 땅의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밤도 아들은 또 붓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앞에 가 닿지 못하리라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아들은 때로 이렇게 붓을 드는 것을 그 어떤 자식된 도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녕 이 밤만은 어머니 앞에 드릴 편지를 쓰지 않고서는 못 견딜 간절한 심정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가끔 써 보는 편지에마다 하는 말이지만 어머님을 못 뵈온지도 어느덧 열 세 해나 됩니다. 어머니께서 계실 그 초가막집은 어찌 됐는지? 어머니의 병환은 더 고통을 드리고 있지나 않는지? 누이동생 영실이는 얼마나 컸는지…자나 깨나 이런 생각이 한시도 떠나지 않습니다.

어머니! 이 밤 제가 또 붓을 든 사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민 학교에 다니는 경희란 애가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직 한 번도 얼굴도 못 보고 안아도 못 본 귀여운 소녀입니다.

이 경희가 그만 오늘 저의 가슴을 울려 주었답니다.

모두 식탁에 둘러 앉아 아침 식사를 할 때였지요. 라디오에서 남조선 소식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버릇대로 귀를 강구고 듣기 시작했지요. 남조선 농촌 주민의 3 분의 2 이상이 절량에 허덕인다는 이야기며 온 가족이 굶주림을 이기지 못 하여 집단 자살했다는 기막힌 이야기, 전대 미문의 풍수해를 만난 고향'벌 사람들이 물에 떠내려 가는 지붕을 타고 구명을 호소했다는 비통한 이야기… 정말 저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그만 목이 메여 밥숟가락을 뜨다 말고 멍하니 앉아 있었지요. 그런데 이 때 경희년이 머루알 같은 깜장 눈을 깜박거리더니

《아빠, 할머니께 이밥 한 그릇만 갔다 드렸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목이 울컥 메는 것을 참노라 애를 썼습니다.

《얘, 어서 먹구 학교엘 가렴.》

제 어머니가 이렇게 타이르는 말에 경희가 또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씨!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모두 굶고 있는데 어머닌 것두 몰라요?》

순간 우리는 경희의 천진한 두 눈에 맑은 것이 가득 고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해는 끝내 참지 못 하고 돌아 앉아서 흑흑 느껴 울었고 저도 주먹으로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어찌 이것이 한 철부지 아이의 말이겠어요. 공화국 북반부 모든 사람들의 한결 같은 심정입니다.

글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은 지금 궁궐 같은 문화 주택에서 살면서 지난 해만 하여도 100여 가마니의 벼와 2,000여 원의 현금을 분배 받아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유족하게 살고 있는데 어찌 하여 어머니와 고향 사람들은 굶주림에 시달려야 합니까?

옛날 전설에 효녀 심 청이는 아버지의 눈을 띄울 공양미 삼백 석을 얻기 위하여 임당수 푸른 물에 몸을 던지기까지 했다는데 이 자식은 고'간에 옥백미를 그득 쌓아 놓고도 굶주림에 시달리는 어머니며 동생에게 한 되'박의 쌀조차 보낼 수 없으니 글쎄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온 겨레의 심정과 념원을 반영하여 금번 공화국 내각에서는 다시금 사경에 처한 동포들, 남반부의 절량민과 풍수해 리재민들에게 우선 10만 석의 백미를 무상으로 보내 줄 데 대한 뜨거운 동포애를 표시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 민족적 의리입니까.

어머니! 올해에도 이 아들이 살아서 싸우고 있는 북반부는 대풍이 들었습니다. 옛날엔 낟알을 심어 놓고 몇 날 몇 밤 동이로 논에 물을 길어 부으며 비를 바라는 사람들의 원성이 하늘에 닿았다는 이 곳 열 두 삼천리'벌도 지금은 세세년년 만풍년이 듭니다.

그런데 《곡창 중의 곡창》으로 불리우던 내 고향 호남'벌은 어찌 하여 해마다 그렇게 흉년만 드는지요. 밤낮으로 《관개 공사》요, 《치산 치수》요, 《재해 대책》이요 하고 떠벌리는 군사 깡패놈들의 허울 좋은 약속은 다 어디로 갔는지요. 문제는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주구놈들이 그냥 있는 한 곡창 지대이던 호남'벌이 결코 절량 지대 신세를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머니! 저는 금번 공화국 내각의 결정을 접했을 때 정말 감격에 겨웠습니다. 우리의 뜨거운 손'길이 한시 바삐 남조선 동포들에게가 닿았으면… 우리의 구호미가 어서 빨리 어머니와 고향 사람들에게 가 닿았으면…하는 생각으로 밤'잠조차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이 쌀은 조금도 지체 없이 어머니와 남조선 동포들에게 가 닿아야 합니다. 나는 이것을 한 아들의 립장에서 그리고 한 공민의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 요구합니다.

어머니! 만약 그 쌀이 어머니에게 가 닿으시면 이 아들의 땀과 간절한 념원도 그 구호미 속에 깃들어 있다는 것을 부디 잊지 말아주십시오.

그럼 어머니…이젠 그만 붓을 놓겠습니다. 창밖으로 시원하게 흘러 간 저 은하수에 아들과 며느리와 손녀의 간절한 념원과 인사를 다시 한 번 보냅니다.

1963년 6월

열 두 삼천리'벌에서

아들 최 영호 올림

수자와 사실

★ 현재 미국의 세대 당 직접 및 간접세는 매년 2,500만 딸라에 달한다.

집세만 하여도 미국 로동자들의 생계비의 31 %에 달한다. 그러나 그것마저 주택이 부족한 탓으로 구할 수 없으며 따라서 미국 인구의 33%에 해당하는 약 6천만 명이 《사람으로서 살 수 없는》 빈민굴에서 살고 있으며 그 중 2,700만 명 이상이 《매일 저녁을 굶은 채 잠'자리에 눕는다.》

★ 미국에서는 1천만의 문맹자가 있으며 전국 청소년들의 30~40%가 학교를 끝내지 못 하고 퇴학하고 있으며 가난한 지방과 도시들에서는 그 수가 70~80%에 달한다.

★ 미국에서 암과 심장병으로 매 분 두 사람이 희생되고 있으며 이러한 병으로 1961년에 100만 명 이상이 사망하였다. 오늘 미국에는 각종 질병에 걸린 2천만 이상의 환자가 있으며 성병 환자만도 50만을 넘는다. 맹장염 수술비는 250 딸라이고 4일 간 입원한 산모는 700 딸라를 물어야 하는 형편에서 한 달에 30~40 딸라 밖에 받지 못 하는 로동자들이나 실업자들이 병이 걸리면 어찌 되겠는가는 가히 알만한 일이다.

★ 미국에서 최근 년간 생산에서의 사고 건수는 2 배 내지 3 배로 격증되였다.

국가 안전 회의가 발표한 수'자에 의하면 1962년에 로동 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96,500명, 부상자 수는 970만에 달하였다.

★ 미국에서 지난 해 교통 사고 건수는 41,000건으로 1961년에 비하여 8 % 증가하였다.

실 화



빼앗긴 청춘

어느 날의 퇴근 후 시간이였다. 흥남 비료 공장 류산 직장장인 임 시호 아바이는 젊은이들에게 에워 싸여 있었다. 씩씩하고도 애된 젊은이들, 행복한 세월에 살며 자라는 그들의 얼굴마다엔 맑고 행복한 웃음이 물'결 치고 있었다. 그 중 나어린 한 청년이 아바이 앞으로 바싹 조여 앉으며 독촉하는 말이다.

《아바이, 그 다음엔 어찌 됐어요?》

아바이는 천천히 담배를 몇 모금 빨다가 말을 이었다.

《자네들은 <만보>라는 게 뭔지 모를 걸세. 전 왜정 때 공사장에서 아침마다 로동자들에게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표딱지였네. 그게 있어야 일할 수 있었거든. 나도 그 <만보>라는 것 때문에 숱한 애를 먹었지. 아까두 말했지만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아버지는 병석에 누워 계시고 형마저 학교에 다니다 왜놈 교장놈한테 얻어 맞아 병신이 되였지. 그러니 집안 형편이 어찌 됐겠나, 부득불 나는 열 여섯 살 때부터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하여 성천강 제방 공사에 벌이를 나가지 않으면 안 됐네.

캄캄한 밤'중에 집을 나서군 하였지. 그래야 앞줄을 차지하고 있다가 그 놈의 <만보>를 얻을 수 있었거든.

추운 겨울날 어뜩새벽에 나가서 가마니를 뒤집어 쓰고 자다가 발을 얼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였네. 날이 밝기 시작하면 감독놈이 <만보> 뭉치를 들고 거드름을 피우며 나오지. 그러면 숱한 사람들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그 놈한테로 와 밀려 간다네. 한 장 얻지 못하는 날엔 일도 못 하고 영낙 없이 굶는 판이니까 그럴 수 밖에…

감독놈은 자기 앞에 내민 숱한 손들을 지팽이로 타락 쳐 물리치면서 힘꼴이나 쓸 사람에게만 <만보>를 내주었네. 그러니 나 같이 어린것들이야 어디 좀좀 해서 그걸 얻을 수 있어야지, 한 달이면 열흘도 일하나 마나 하였네. 따라서 굶기를 부자'집 밥 먹두룩 했지. 그 때 세월엔 이런 큰 공장에 들어 오기란 정말 힘이 들었네. 나도 여기에 들어 오려고 세 번이나 <직공 시험>을 쳤지만 번번이 미끄러졌네. 네 번째로 내가 시험을 치는 날이였지. 바로 그 날도 천여 명 군중이 이 공장 <고급 사원 구락부> 앞에 모여 들었네. 시험관놈이 어슬렁거리며 나타나더군. 그 놈들은 사람들을 쭉 줄 세워 놓고는 몸을 이리저리 돌려 세워 보기도 하고 어깨도 만져 보고 손'바닥도 자반질해 보데. 만약 손'바닥에 장알 하나 박히지 않아도 사정 없이 쫓겨 나군 하였네.

…맨 나중에 무게가 60 키로나 되는 <모래섬 메고 달리기>가 있었네. 그것까지 합격해야 신체 검사에 붙는 판이였거던. 그걸 메고 달리다가 철썩철썩 땅에 쓰러지는 사람이 많았네. 정말 붙기가 힘들었다니까.》

아바이는 깊은 추억에 잠기는듯 잔조름히 눈을 감더니 잠시 이야기를 끊었다. 젊은이들도 말이 없었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행복한 세월에 살면서도 아직도 《실업》이란 말을 학습회에서 들었거나 신문에서 밖에 보지 못 한 이 천진란만한 젊은이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도 기이한 일로 생각되였던 것이다.

《…자 그럼 내·이제부터는 왜정 때 이 공장 형편에 대해서나 좀 얘기할가…

공장에 들어 온 후 처음으로 배치된 곳이 바로 이 류산 직장이였지. 배소로에서 류화철을 태우는 노란 연기 때문에 눈코조차 뜰 수 없었네. 글쎄 그 놈의 냄새가 어찌나 지독했든지 <하늘로 날아 다니는 수리개도 떨어진다>는 말이 있었네. 류산이 될 때마다 헌 누더기 옷에 구멍은 펑펑 뚫리지 기침은 쿨룩쿨룩 나지 이런 속에서 사람이 하루 12~14 시간씩 일하고 나면 몸이 녹초가 된단 말이야.

글쎄 지금은 가스가 들어 찬 제진실 청소를 전기로 하지만 그 때까지는 그 지독한 속에 기여 들어 가 삽으로 담아 내였네. 공장에 들어 온지 얼마 안 되는 어느 날 날더러 그 제진실 속에 들어 가 청소를 하라데. 몸에 헌 걸레를 두텁게 싸고 그 800도 고열 속으로 기여 들어 갔네. 뜨거운 바람이 확 풍기고 앞이 캄캄하더군. 몇 번 삽질을 하다가 그만 참지 못 하고 도루 뛰쳐 나오려 하였네. 그런데 문에는 시커먼 그림자가 우뚝 막아 서지 않았겠나.

<이 놈아 일이나 바리바리 해라. 어째 벌써 나오냐?>

<좀 내놔 줘요. 사람이 죽어요.>

나는 울면서 사정하였네. 그래도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감독놈은 막 무가내로 그냥 뻗치고 섰더군, 나는 끝내나 그 뜨거운 제진실 바닥에 얼굴을 박고 쓰러져 버렸네.

지금도 눈앞에 선하네. 나하구 친한 동무로 더 현재란 친구가 있었지. 말이 없고 순박하고 참 좋은 동무였어. 고향이 영흥 어느 농촌이란 그는 집에다 부모며 어린 자식들도 두고 왔다네. 버릇처럼 한 번 돈을 벌어 가지구 고향에 가서 전장도 얼마간 사서 남 보란듯이 잘 살아 봤으면 좋겠다구 말하군 했지.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일하던 분쇄기 쪽에서 아치러운 외마디 비명이 들리지 않겠나. 한달음에 달려 가 보니 그가 보이지 않더군. <현재! 현재!> 나는 목청껏 불렀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네. 그제사 눈여겨 보니 분쇄기 주변에 피 묻은 누더기들이 널려 있더군. 아무런 안전 시설도 없는 분쇄기에 기름을 치다가 그만 걸려 든 것이였네. 글쎄 이런 억울한 일이 세상에 어데 있겠나. 우리는 그 때 모두 주먹을 쥐고 비분에 떨었네.

하기사 왜정 말기에. 이 직장 로동자가 970 명이였는데 그 중 폐병에 걸린 사람이 92%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공장 형편을 알 수 있지 않는가! 정말 그 때 이 공장이라는 게 말 그대로 생사람을 잡아 먹는 지옥이였네.

게다가 놈들이 로동자들을 얼마나 지독하게 착취하던지 회사에서 나오는 얼마 안 되는 월급을 계장놈이 뜯어 먹구 감독놈이 뜯어 먹구 공급소 놈이 뜯어 먹구 나면 손에는 아무 남는 것도 없었지…

그런 놈의 세상에서 젊은이들에게 무슨 꿈이 있구 무슨 사랑이 있었겠나. 청춘 시절을 몽땅 빼앗기고 살았단 말일세. 흠 없는 임자네들에게 내가 겪은 쓴 사랑에 대해서 한 마디 하겠네.

내 나이 스물 여섯에 나두 한 처녀를 사랑했었네. 얼마 있다가 마침내 그와 약혼두 했지. 상대방은 바다'가에서 일하는 순녀라는 복스럽게 생긴 처녀였네. 비록 한 사람은 숨이 탁탁 막히는 <지옥>에서 일하고 다른 한 사람은 손이 쩡쩡 얼어 터지는 오동지'달 추위 속에서 고기 밸을 따내는 이를테면 인간 사회의 최하층에 사는 사람들이였지.

달 뜨는 저녁 그와 둘이서 바다'가 백사장을 거닐며 얘기하던 일이 생각 나는군.

<순녀! 난 이제부터 술, 담배도 끊겠어. 앞으로 정말 잘 살아 보자구.>

내가 이렇게 말하면 순녀는 귀밑까지 붉히면서

<잘 살 날이 있겠지요 뭐.>하고는 하얀 모래

우에다 발끝으로 동그라미를 그리였지.

그러던 그가 어느 날 힘든 바다'일에 지쳐 허덕이고 있었는데 그를 본 선주놈이 와락 달려 들어 걸어 찼단 말일세. 그 날부터 그는 자리에 눕게 되였지. 소식을 듣고 나는 한달음으로 달려 가 그를 업고 병원으로 가질 않았겠나. 놀라지들 말게, 글쎄 그는 그 병원 문전에서 숨을 끊고 말았네. 아까운 나이에 말일세.

지금두 그 때 그가 숨을 거두면서 하던 마지막 말을 잊지 않고 있네.

<난 정말 잘 살아 볼가 했어요. 정말 난…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순녀는 끝내 돈이 없는 죄로 원통하게 세상에서 스러지였네. 말하자면 사회악의 희생물이 되였지. 나는 그의 시체를 붙안고 <순녀! 순녀! 어째 벌써 죽었소. 왜 더 오래 살지 못하고 벌써 죽었는가 말이요.> 하고 자꾸 불렀네…》

청년들은 저마다 말이 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한것은 아바이의 두 눈에 고인 이슬에서 무서운 불'빛 같은 것이 번뜩이고 있었기 때문이였다.

이윽고 아바이는 다시 말을 이었다.

《설상 가상으로 그 해에 고향에서 앓고 계시던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구 말았네. 결국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았네.

그러나 젊은이들, 우리가 그 때 놈들에게 결코 눌리워서만 살지 않았네. 로동자들은 도처에서 들고 일어나 놈들과 싸웠네. <친목회>, <상조계> 사건이 자주 벌어졌구, 파업이 일어났네. 어느 해 5.1 절에는 증기 직장 굴뚝에 <만국의 로동자여! 단결하라!>는 구호가 높이 나붙었구 200여 매의 격문도 공장 구내에 살포되였네. 이웃 제련 공장 같은 데서는 600 명 로동자들의 총 파업도 있었구.》

아바이의 이야기는 끝났다. 자리에서 몸을 일으킨 아바이는 뚜벅뚜벅 창문'가로 걸어 갔다. 산뜻한 외출복들을 갈아 입은 공장 대학이며 고등 기술 학교로 걸음을 옮기는 청년들의 모습이 창문을 통하여 보였다. 이윽고 아바이는 몸을 돌이키고 그 혈색 좋은 얼굴에 미소를 함빡 담으면서 말씀하였다.

《결국 나는 놈들에게 빼앗겼던 청춘을 우리 로동당 시대에 와서야 찾았네. 흔히 인생의 봄을 20 전후라 하지만 나의 청춘은 40 대에 들어 서서야 시작되였네. 그래두 이젠 대학을 졸업하구 기사가 됐겠다, 직장장이 됐겠다, 정말 사람이 되였네.》

공장 보도 쪽에서 처녀들의 맑은 노래 소리가 들려 왔다.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손풍금 소리 울려라
사람들 화목하게 사는
내 조국 한없이 좋네…

그렇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일하며 배울 수 있는 우리의 조국은 얼마나 좋은가! 우리는 진정 좋은 시대, 좋은 제도에서 살고 있다. 어느덧 휴계실의 젊은이들도 낮은 소리로 따라 부르고 있었다.

(본사 기자)

(17페지에서 계속)

《무슨 소리냐 건?》

《직장 선수를 수직 세우는 법이 어데 있어요.》

《수직은 무슨 수직이야?》

《일남 동무 말이예요.》

세포 위원장 아바이는 마음에 지피는 데가 있었다.

(음 녀석이 날 속였군…)

과연 조립장에 가 보니 일남이는 연도기의 왕복대에 볼편을 푹 묻고 혼곤히 잠들고 있었다. 창문으로 비쳐 든 아침 해'살이 그의 두 볼을 발가우리하게 물들이고 있었다. 무슨 꿈이라도 꾸는듯 해발쭉이 벌린 입'가에 함뿍 미소가 어렸다.

아바이는 그를 깨우려다 말고 웃옷을 벗어 일남이의 등을 가려 주었다. 다문 얼마라도 더 재우고 싶은 심정에서였다.

(원 신통히는 제 애비를 닮았다니까…하기사 둘이 다 진짜 살림'군들이지.)

아바이는 그 어떤 큰 격정에 사로잡혔다.

그는 천천히 창'가로 걸음을 옮겼다. 창 너머로는 일남이가 애지중지해 하는 꽃밭이 내다 보였다. 각가지 꽃들이 망울을 쳐들고 떨기떨기 피여 나고 있었다.

실화



풍년새가 운다

빼꾹—빼꾹— 빼꾹새가 운다.

왕가물 불볕에 온 땅이 목 말라 허덕이던 지난날엔 저 빼꾹새 소리도 사람들에게는 가슴을 치는 통곡소리처럼 들려 왔다.

그러나 오늘은 사람들이 저 빼꾹새 소리를 들으면서 그것을 풍년새라고 한다!

대목산 기슭에서 빼꾹새가 울 적마다 이 곳 장공리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며 그렇게 말한다.

선천군 장공리 푸르싱싱한 논'벌에선 한창 《김매기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정실 동무, 저 둑에 가서 좀 쉬시오. 빼꾹새 소리를 들으면서 말이오. 난 정말 동무를 못 따라 가겠소.》

흰 머리'수건을 쓰고 치마 허리를 잘끈 동여 맨 처녀에게 한 청년이 소리친다.

《괜한 소리 말구 어서 따라 와요!》

《그래두 이 번 경쟁만은 우리한테 안 될 걸!》

《두고 보자요.》

《15 일 전투》의 그 어느 나날도 민청원들에게는 밤과 낮이 따로 없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날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최후 돌격전에서 신'바람 나게 일'손에 불꽃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였다.

이윽고 휴식종이 울린다.

《자, 좀 쉬자구!》

누군가가 이렇게 웨치자 민청원들은 얼굴의 땀을 훔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둑 우에 올라 선다. 그들은 버드나무 그늘을 밟기가 바쁘게 다리쉼도 모르고 둘레둘레 모여서 춤을 대구 추는 것이였다.

이런 춤판으로 한 처녀가 머리 우에 물'동이를 이고 나타났다.

《물이예요!》

청년들은 욱 하고 물'동이를 인 처녀를 둘러 쌌다.

《동무처럼 찬물이 아니요?》

《이 물은 사랑물이지요?》

《몰라요 난…》

아까부터 천진스러운 민청원들의 이런 익살을 바라 보면서 아바이 한 분이 나무 그루에 기대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도 껄껄 웃으면서 한목 끼는 말이다.

《그렇게 성화를 먹이면 다음부턴 물을 못 얻어 먹네…》 하였다.

《세포 위원장 아바이 말씀 대로 다신 안 길어 올래요…》

하면서 그 처녀는 동이의 물을 한 사발 떠

서 세포 위원장 동무한테 가져 왔다. 그는 물사발을 받아 들더니 그것을 단숨에 쭉 들이켰다.

《물맛이 참 좋군!》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였다. 문득 세포 위원장 아바이는 무엇이 생각 났던지 또 무엇을 생각해 내고 있는지 하여간 알 수 없지만 지금 한 민청원이 이고 온 물'동이만을 오래오래 들여다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바이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십니까?》

청년들은 저마다 의아한 눈초리로 세포 위원장 아바이를 주시하였다.

《내 임자네들한테 할 말이 있네. 이 황금'벌을 추겨 주는 물과 여기 놓인 물'동이 물을 두고 말이네…》

이렇게 시작된 세포 위원장 동무의 어제'날에 대한 이야기는 모여 앉은 청년들의 가슴에 참으로 뜨거운 것을 안겨 주었다.

× ×

…30여 년 전만 해도 여기엔 논이 별로 없었다. 있었대야 그것은 하늘바라기 다락논과 샘물받이 논이여서 좀처럼 물 구경을 하기가 힘들었다. 그래 사흘만 가물어도 논'바닥이 터졌다. 그럴 때면 농민들은 하늘을 바라 보며 통곡을 했고 호미'날에서 불꽃이 이는 논을 뚜지며 울면서 고창모를 내군 했다.

지주 김 례수란 놈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던 아홉 살 난 사내아이가 하나 있었다. 어느 날 그는 풀밭에서 소를 먹이고 있었다. 소를 몰며 풀밭을 거닐던 그는 보'도랑'가에서 울고 있는 동생을 발견했다.

그는 어머니가 야속해 보였다. 저렇게 뙤약별이 내려쪼이는 곳에서 애기가 자꾸만 울고 있는 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무리 쏟아 부어야 고이지도 않는 물을 물'동이로 이고 오고 또 이고 오고만 있는 어머니가 정말 밉기까지 했다.

소먹이 아이는 제 나이 비록 아홉 살이지만 저보다 더 어린 동생이 애처로워 보였다.

동생을 물끄러미 내려다 보고 섰던 그는 동생에게 물이라도 떠다 먹이고 싶었다.

그가 바로 바가지에 물을 떠가지고 배고파 우는 동생 있는 곳으로 올 무렵이였다. 그는 지주놈과 마주쳤다.

가물이 들자 지주놈은 가을에 긁어 들일 낟알이 적어질가 봐 미친개처럼 쏘다니면서 작인들을 대구 못 살게 굴었다.

《이 놈의 새끼, 내 밥 먹고 내 소는 안 먹이고 왜 자꾸 물만 퍼 먹니 엉? 내 논이 마르는 것이 안 보이니!》

지주놈은 소먹이 아이의 손에서 바가지를 나꾸채더니 그것을 논판에 홀 뿌렸다.

바로 이 때였다. 풀을 뜯던 소가 갑자기 고삐를 채며 황황히 저만치로 달아 나기 시작했다. 소먹이 아이는 지주놈을 쏘아 보며 섰다가 두 주먹으로 눈물을 훔치면서 소를 따라 달렸다. 그는 겨우 고삐를 잡았으나 갈개는 소의 힘을 당해 내지 못했다. 멀리서 이 광경을 보고 어른들이 달려 와서야 겨우 소를 진정시킬 수 있었다. 지주놈은 잔뜩 얼굴을 찌프린 채 《왜들 서만 있니, 냉큼 가서 물이나 퍼 낼 것이지.》 하면서 불호령을 지르는 것이였다.

어른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자 보'둑 우엔 소먹이 아이와 지주놈만이 남게 되였다.

지주놈은 와락 소먹이 아이를 덮치며 달려들었다. 소먹이 아이는 애처로운 비명을 지르며 땅 우에 쓰러졌다. 지주놈은 그의 어깨며 등허리를 발'길로 내리쳤다.

이튿날 지주놈은 소먹이 아이 아버지를 불러 놓고 이런 말을 했다.

《그 놈이 일부러 소를 논에 들여 놔서 모들을 망치게 했고 게다가 논'고까지 허쳐서 물을 말리웠으니 당장 논에 물을 채워 놓게.》

《아니 그야 댁의 소가 한건데 너무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기가 막혀 이렇게 대꾸했다.

《뭐라구? 정 그렇다면 내 땅 부칠 생각을 아예 말게.》

이 날부터 소먹이 아이의 부모들은 말라 터지는 왕가물 불볕 아래서 지주'집 논에 물을 대야 했다.

소먹이 아이는 물'동이로 물을 퍼 나르는 어머니의 이마에서 물이 아닌 피가 흐르는 것을 보았다.

어린 가슴은 찢어질듯 아팠다. 아버지는 밤낮 없이 행여나 물이 나올가 하고 웅뎅이를 팠다. 그러나 땅에서는 단김만 확확 피여 오를 뿐 단 한 방울의 물도 새여 나오지 않았다.

어느 날 소먹이 아이는 늪바닥을 파다가 쓰러진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 내가 잘못 했어… 날 때려 줘, 아버지.》

그는 쓰러진 아버지의 어깨 우에 매달려 목놓아 울었다.

소먹이 아이는 쓰러진 아버지의 품을 어루만지며 울다가 그만 《아버지—》 하고 비명을 지르며 창백한 얼굴을 두 손에 파묻으며 벌떡 일어 섰다. 그의 아버지가 숨을 거둔 것이다. 그는 어린 나이에 벌써 아버지의 죽음을 이렇게 본 것이다.

× ×

《온 땅이 갈증에 못'이겨 터졌고 사람들의 가슴들도 그래서 터지고 또 터지던 그런 세상이 이 땅에 있었다네…》

세포 위원장의 이야기는 끝났어도 누구나 말하는 이 없었다. 한동안 침묵이 흘러 갔다. 그러다가 이윽고 누군가가

《그 소먹이 아이가 누군가요?》 하고 물었다.

《나네, 바로 내가 그 소먹이 아이였네… 아니네. 임자네 아버지, 어머니들 모두가 그렇게 자라며 살았네…》

한동안 또 침묵이 흘렀다. 미풍에 가볍게 설레이는 버드나무 잎도 대목산 너머로 피여오르는 뭉게 구름도 이 침묵을 깨뜨리기를 저어하는듯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바로 이 때 대목산 록음 속에서 《뻐꾹—뻐꾹》 하고 뻐꾹새가 울었다!

《자 풍년새가 운다. 또 한바탕 해 보세.》

아바이는 자리에서 일어 나며 이렇게 말했다. 청년들은 그의 뒤를 따라 논물에 들어섰다. 들어 서면서 그들은 무연한 벌을 바라보았다.

오늘 이들의 가슴에 모여 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수백 리 산을 뚫고 골짜기를 가로 질러 흘러 온 압록강 관개의 보'물이다. 이 고장에서 낡은 드레물박과 물'동이를 먼 옛날로 흘러 보낸 황금의 땅을 질펀히 추겨 주는 생활의 흐름이다.

그 흐름 우로는 그 위대한 흐름의 주인공들인 청년들이 부르는 힘찬 노래 소리가 멀리에까지 메아리쳐 울려 가고 있었다.

본사 기자 한 현준

청년생활 소사전

사람의 수명

사람은 그가 생활하는 환경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100 세 이상까지 살 수 있다.

16 세기 우리 나라의 탁월한 의학자인 허 준은 지금으로부터 약 360 년 전에 출판한 그의 유명한 저서 《동의 보감》에서 사람은 원래 4만 3천 2백 일 즉 120 년을 살 수 있다고 썼다. 로씨야의 학자 메츠니꼬브는 사람들의 정상 수명을 150 세라고 하였으며 또 다른 학자들은 125~150 세라고 하였다.

이것은 건강한 사람이 자연적 또는 생리적 론거에 의해서 나서 자라 늙어 죽을 때의 경우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살면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수명이 연장되거나 단축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회적 요인이다.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존재하는 계급 사회에서 사람들은 착취와 억압, 기아와 빈궁으로 하여 제 명을 다 살지 못 한다.

실례로 일제 시기 우리 인민들의 평균 수명은 37 세였고 지금 미제 강점 하의 남조선에서 평균 수명은 33 세에 불과하다.

그러나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당과 정부의 옳바른 정책으로 인민 생활이 향상되고 인민 보건 사업이 급격히 발전됨으로써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일제 시기에 비해 20 년이나 연장되였다.

그는 어찌하여 고향을 탈출하게 되였는가



—최 서해 작 《탈출기》에 대하여—

강 숙 희

단편 소설 《탈출기》(1925년)는 최 서해 문학의 사상—예술적 특성을 집중적으로 보여 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며 작가 자신의 생활 체험을 직접 소재로 하고 있는 자서전적인 소설이다.

《탈출기》는 가난 속에 시달리던 한 청년이 자기의 목숨 같은 가족들을 거리에 내던지고 고향을 탈출한 이야기로 되고 있다. 작가는 작품에서 이 청년이 고향을 떠나지 않을 수 없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해명하면서 그를 통하여 그 당시 사회 제도의 근본 모순과 그에 대한 작가의 태도를 보여 주었다.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 나라를 강점한 후 조선 인민의 생활은 날로 악화되여 갔다. 강도 일제 침략자들과 그 주구 지주, 예속 자본가들의 2중, 3중의 착취 아래 조선 사람은 살래야 살 수가 없었다. 그들은 일'자리와 고향으로부터 쫓겨 나 낯선 이국 땅으로 살'길을 찾아 떠났다.

소설의 주인공 박군도 바로 이런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다. 박군은 《너무도 절박한 생활》에 시달리다 못해 《새 희망을 품고 새 세계를 동경하여 》 살기 좋다고 들어 오던 간도로 찾아 간다.

그러나 그의 《리상》은 물거품으로 돌아 갔다. 《간도는… 기름진 땅이 흔하여 어디를 가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다던 말은 헛말이였다. 간도에도 주인 없는 땅은 없고 돈을 주지 않고는 한 평도 얻을 수가 없었다. 산천도 사람들도 생소한 곳에 빈 손으로 나타난 박군은 살'길이 막연하였다. 그는 식구들을 살리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이리저리 다니면서 구들도 고쳐 주고 가마도 걸어 주며 여름에는 삯김도 매고 꼴도 베여 팔았다. 그의 어머니와 안해는 삯방아를 찧고 강'가에 나가서 부스러진 나무'개비를 주었으나 그들은 언제나 이틀 사흘을 굶기가 례사이고 임신한 그의 안해는 주림을 못'이겨 길'가에 버린 귤 껍질을 주어다 먹기까지 하였다. 박군은 무서운 인간고를 겪는다.

박군은 이러한 절박한 생활을 체험하면서 차츰 생활의 진리를 깨닫는다. 그 때부터 박군의 머리에는 새로운 사상이 싹 텄다.

봄의 풀싹과도 같이 그의 머리 속에서 움터 오는 사상, 그것도 자기가 아직까지 속아 살았다는 데 대한 뉘우침이였고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적 모순에 대한 인식이였다. 따라서 이 제도를 그저 두고는 자기의 생활을 개선할 수 없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이 제도부터 없애 버려야 한다는 확고한 자각이였다. 그리하여 박군은 그 제도를 쳐부시기 위하여 집을 탈출하여 ××단에 가입하여 《비'바람, 밤낮을 가리지 않고 벼랑 끝보다 더 험한 전선에》서 싸운다.

작가는 고향과 가정을 열렬히 사랑하며 누구보다도 정애가 있는 박군이 이역 로두에다 의지할 곳 없는 부모'처자를 두고 집을 나가지 않을 수 없었던 사정을 뜨거운 정열로 묘사하고 있다.

박군은 부지런하고 량심 있는 청년이였다. 그의 식구들은 어떻게 하나 자기의 충실한 로력으로 살아 가려고 애썼다. 박군은 곤난이 닥칠 때마다 《어떻게 든지 살아 보자!… 이 목숨이 있는 때까지는 벌어 보자》라고 이를 갈며 일어 선다. 그는 《부지런한 자에게는 복이 온다》는 말을 《지상의 격언으로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돈이 돈을 낳고 그 돈이 세상의 모든 것을 글어 쥐는 승냥이 세상, 자본주의 제도 하에서 빈 주먹의 박군이 무슨 수로 살 수 있었으랴! 순박한 박군은 아직도 자본주의 사회의 내막을 알지 못 하였고 그 까닭에 자기 희망에 속아 온 것이다. 부지런하자니 일'자리가 없는데 어디서 일을 한단 말인가, 논밭은 물론 산판까지 임자 없는 땅은 한 조박도 없고 그에게 일'자리를 주는 사람도 없다.

작가는 이러한 박군의 생활을 통하여 1920년대 조선 근로 인민의 암담하고 처참한 빈궁 상을 보여 주면서 이들의 고통과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혀 준다. 그리고 이 원인을 깨달은 사람으로써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여태까지 속아 살았다. …우리는 우리로서 살아 온 것이 아니라 어떤 험악한 제도의 희생자로서 살아 왔었다.》 박 군은 이렇게 자기네를 희생시킨 그 사회의 본질을 파악한다. 이 사회는 《충실한 우리를 모욕하고 멸시하고… 포악하고 허위스럽고 요사한 무리를 용납하는 세상》이다. 따라서 《이 분위기 속에서는 아무리 로력하여도 우리는 우리의 생의 만족을 느낄 날이 없을 것이다.》, 《그러려면 나는 나에게 최면술을 걸려는 무리를, 험악한 공기의 이 원류를》 쳐 부셔야 한다고 그는 웨친다.

박군이 깨달은 이 새로운 진리는 1920년대 조선 현실이 제기한 가장 절실한 문제에 대한 옳바른 해답이였으며 당내 조선 인민을 새로운 진리에로 인도하는 길잡이와 같은 것이였다.

그리하여 박군은 그처럼 사랑하는 어머니와 안해를 버리고 싸움의 길에 나섰다. 박군이 나아간 길은 당시 근로 인민들이 걸어야 할 유일하게 정당한 길이였다.

이와 같이 최 서해는 이 작품에서 자본주의 제도의 《비밀》을 깡그리 드러내 보여 주면서 불의로 얽힌 이 사회의 멸망은 불가피하며 새 사회는 오고야 만다는 굳은 신심을 보여 주었고 그리고 그 새 사회는 오직 근로 대중의 투쟁에 의해서만 쟁취될 수 있다는 것을 진실하게 보여 주었다.

작가 최 서해의 이와 같은 절절한 호소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였다.

1920년대부터 시작된 우리 나라 로동 운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앙양되여 일제와 그 주구들에게 치명적 타격을 가하였다. 1930년대에 들어 와서는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손에 무장을 들고 오늘과 같은 행복한 사회주의 락원을 건설하기 위해 일제 침략자들과 국내 반동 계급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과감히 전개하여 빛나는 승리를 쟁취하였다.

우리는 이처럼 최 서해의 《탈출기》를 통하여 당시 착취 사회의 모순과 그 사회를 반대하여 일떠선 우리 나라 로동 계급의 투쟁 모습을 보게 된다. 그의 주인공들은 모두가 로동을 사랑하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참되게 살아 보려는 열렬한 인간, 그러면서도 사회에서 버림 받은 《험악한》 생활자들이였다. 그들은 생활의 고통이 극도에 달한 환경에서 자기의 처지를 자각하며 불합리한 사회—자본주의 제도와 싸움을 선포한 사람들이였다.

이 사람들의 리상은 8.15 해방 후 공화국 북반부에서 실현되였다. 우리는 오늘 조선 로동당이 펼쳐 놓은 행복의 요람, 지상 락원에서 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다.

행복할수록 과거를 잊지 말라!

왜냐 하면 자기의 행복 속에 깃든 선렬들의 고귀한 넋과 투쟁 흔적을 잘 알면 알수록 오늘의 행복을 귀중히 여기며 따라서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더욱더 분투할 것이기 때문이다.

박군이 겪은 《험악한》 생활 그것은 우리 부모들이 다 같이 걸어 온 생활이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 남반부에서는 오늘도 우리 동포들이 이러한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캄캄한 어둠 속에서 작가 최 서해가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부터 근로 인민의 고통을 한 가슴에 안고 그들의 해방을 웨쳤고 인민들을 투쟁에로 부른 그 애국적인 정신을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 그리하여 청년들은 우리 계급의 전위대—조선 로동당이 령도하는 혁명의 길에서 더욱 충실하여야 한다.

정치 학습 과 기술 학습

☆

리 재 경

☆ ☆

우리들이 하고 있는 학습은 크게 정치 학습과 기술 학습으로 나눌 수 있다.

정치 학습이란 무엇이며 기술 학습이란 무엇이며 또 그의 호상 관계는 어떠한가를 옳게 리해하는 것은 우리들의 학습 생활에서 필요한 일이다.

정치 학습이란 말 그 대로 정치를 배우는 것이다. 우리의 정치는 쉽게 말해서 당과 그의 령도를 받는 국가 기관, 사회 단체들이 로동 계급과 인민의 리익을 위해서 수행하는 활동이다. 그러므로 정치는 로동 계급의 위업 달성을 위한 활동이며 전체 인민의 해방과 그의 행복한 생활을 위한 그리고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이다.

정권이 인민의 손에 장악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전체 인민들과 함께 우리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있으며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들은 정치를 잘 배우고 있으며 정치를 잘 배울 뿐만 아니라 그 활동에 적극 참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들의 학습 생활에서 정치 학습은 가장 중요한 학습 내용으로 되고 있다.

우리들이 진행하는 정치 학습의 기본 내용은 맑스-레닌주의와 그를 조선 혁명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우리 당 정책이다.

맑스-레닌주의는 사회 발전 법칙과 계급 투쟁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주며 어떤 복잡한 정황에서도 방향을 정확히 잡을 수 있게 하는 라침판이며 혁명 투쟁에서의 강력한 무기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이 무기를 튼튼히 틀어 잡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일찌기 **《어느 부문에서 일하든, 무엇을 전문으로 하든 간에 전체 청년들은 의무적으로 맑스-레닌주의를 학습》**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 정책은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구현된 맑스-레닌주의이다.

당 정책에서는 우리들이 당면하게 해결해야 할 성숙된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제시되여 있으며 인민들의 절실한 념원이 정확히 반영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은 당 정책을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완강한 투쟁을 통해서만 당'적 사상 체계를 확립할 수 있으며 혁명적 수양을 쌓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정치 학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김 일성 동지의 령도 하에 전개된 항일 무장 투쟁 과정에서 이룩된 혁명 전통 학습이며 이 혁명 전통을 이어 조선 혁명을 승리에로 인도하는 우리 당 력사에 대한 학습이다.

이러한 학습을 잘 할 때에만 우리는 혁명 선렬들의 불굴의 혁명 정신과 숭고한 품성을 본받을 수 있으며 또한 우리 당의 뿌리와 투쟁 경험을 철저히 파악하고 인민의 지향과 숙망이 반영된 우리 당의 혁명 위업에 자각적으

로 훌륭히 참가할 수 있다.

기술 학습이란 생산 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기능을 소유하기 위한 학습을 말한다.

청년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자면 선진 과학과 기술을 소유하여야 한다. 과학 기술을 소유함이 없이 우리는 전반적으로 발전된 새 형의 인간으로 될 수 없다.

특히 기술 혁명의 앞장에 서야 할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과학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혁명적 임무의 하나로 된다.

이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누가 기술 발전에서 선봉으로 되여야 하겠는가? 그것은 새것에 민감하며 진취성이 강한 청년들입니다.》

그러면 정치 학습과 기술 학습은 어떤 호상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한 마디로 말해서 이 량자는 호상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정치 학습이다. 왜 그런가? 그것은

첫째로, 정치는 기술 발전에 대하여 옳은 목적과 방향을 주기 때문이다. 즉 어느 계급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어떤 사회 정치 제도인가에 따라서 기술 발전의 목적과 방향이 좌우되는 것이다.

우리 제도 하에서는 기술 발전의 목적이 근로 인민이 일을 헐하게 하면서도 로동 생산 능률을 부단히 높이는 데 있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근로자들을 더 많이 착취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

개별적인 사람의 경우에도 역시 계급적 립장이 확고하고 당'적 사상 체계가 확립된 동무들은 기술 학습의 목적을 자기의 명예와 출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과 혁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데 두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동무들은 당과 혁명을 위하여 보다 절실한 과학 기술적 문제들을 연구하는 데 자기의 모든 힘과 재능을 바치며 생산 발전과 기술 혁명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례를 들어 보자.

어느 기술 대학 통신학부 학생들의 졸업 시험 때 있은 일이다. 한 학생은 《기술자에게야 기술이면 다가 아닌가》 하면서 기술 학습에만 치중하고 정치 과목 학습을 등한히 하였다. 결과 졸업 시험에서 당 력사나 철학 시험에 통과 못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전공 분야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초보적인 당 정책적 문제도 모름으로써 전공 과목 시험에서도 통과하지 못 했다.

만일 이런 동무가 기사의 자격을 받았던들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당의 정책과 방향을 모르는 그에게서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둘째로, 정치 학습의 성과는 기술을 학습하는 청년들에게 혁명적 정열과 불요불굴의 투쟁 정신을 고무하여 준다. 과학과 기술을 배우며 이를 생산에 도입하며 기술 혁신과 생산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고 복잡한 투쟁이며 따라서 혁명적 정열과 대담성, 완강성이 요구되는 투쟁이다.

경험은 당 정책과 혁명 전통 학습을 실'속 있게 진행하면서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는 청년들만이 온갖 보수주의, 소극성, 기술 신비주의를 타파하고 기술 혁신에서 커다란 전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희천 정밀 기계 공장 림 춘환 2중 천리마 작업반원들은 어려운 생산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면서도 매일 4~5 시간을 쟁취하며 정치 학습과 기술 학습을 잘 배합하여 공부하였다. 그들은 작업반원 18 명 전원이 일하면서 배우는 학습망에 망라되여 학습하였다. 어려운 고비를 당할 때마다 그들은 당 정책 학습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정확한 방향을 잡았다. 이리하여 뜨락또르 생산을 위한 수천

개의 공정 중에서 결정적으로 걸렸던 부속품 부란자 붓슈의 생산에서 근 4 회의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마침내 성공해 냈으며 그리하여 200 배로 그의 생산 능률을 높일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이 작업반원들은 7 개월 간에 26 건의 기술적 개선과 6 건의 기계화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8 메터 타닝반과 3천 톤 프레스를 생산해 낸 룡성 기계 공장 주 성일 2 중 천리마 작업반 청년들을 비롯하여 로동당 시대의 천리마 기수들에게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바 그 모두가 다 무엇 보다도 먼저 정치 학습을 잘 한 데 있다.

세째로, 정치 학습은 기술 학습을 진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방법적 문제를 해결하게 한다.

맑스-레닌주의와 당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한 청년들은 암중 모색이 아니라 정확한 방법으로 과학 기술을 연구함으로써 언제나 실'속 있는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다. 그는 항상 객관적 요구와 자기 력량을 타산하여 연구 과제를 정할 줄 알며 학습에서 중심적인 고리를 틀어쥐고 이에 력량을 집중할 줄 알며 리론과 실천을 결부할 줄 알며 집체적 력량에 의거할 줄 알며 연구에서 과학적인 처리 방법과 수법을 리용할 줄 안다.

이것은 청소한 력사를 가진 우리 나라의 과학 기술이 오늘의 성과를 이룩한 기본 요인이다.

《재주가 없다고 근심하지 말 것이니 지식을 련마하면 재주도 늘고 도량이 적다고 근심하지 말 것이니 식견을 넓히면 도량도 커진다.》

《한갖 시나 글줄만 외울 뿐 실행이 없으면 팔구십 세를 산다 하더라도 결국 실속이 없고 그림자만 살아 온 것에 지나지 않는다.》

—리 덕무—(李德懋)

주…리 덕무(一七四一~一七九三)는 인민들의 생활 안정과 사회 발전을 위한 유익한 학문 탐구에 전념하였던 선진적 실학자이다.

다음으로 기술 학습도 역시 우리 청년들에게 매우 중요하며 정치 학습의 성과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된다. 즉 정치 학습도 《리론》을 위한 리론으로서가 아니라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실천 활동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될 때 소기의 성과를 더 거둘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선진 과학 기술을 힘써 배우며 당 정책 관철을 위한 투쟁 과정에서 이룩한 기술 발전의 성과들과 생산에서의 전변들을 옳게 인식함으로써 당 정책의 정당성을 더욱 확신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정치 학습에서도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젊은 로력 영웅 심 광천 동무의 경우를 두고 보자. 화전민의 아들이였던 심 광천 동무는 전후 함흥 전기 전문 학교 재학 당시부터 기술 학습에 전심해 온 동무다. 졸업 후 체신성 설계 사업소에 배치된 그는 일하면서 건설 현장에서 기술 학습에 전심하였고 이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당 정책과 결부시켜 연구하였으며 여기서 힘과 지혜를 얻어 그 과업을 해결하기에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당의 의도 대로 사고하고 투쟁한 그는 학교를 나온지 1 년만에 기사 검정 시험에 합격하였고 57%의 철재를 절약하는 대형의 송전선 철탑을 완성하였으며 많은 동무들의 정치 학습과 기술 학습을 방조하였다. 그리하여 당의 지극한 배려 아래 련'이어 기사로, 로동당원으로, 로력 영웅으로 되는 영예를 지니게 된 것이다.

우리는 우에서 기술만 배우면 된다는 기술 지상주의적 관점이 얼마나 그릇된 것인가를 알 수 있으며 아무리 훌륭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혁명과 상반되는 길을 걷는다면 그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도 없는 인간임을 알았다.

반대로 정치 학습만 강조하면서 기술 학습에 무관심한 태도도 역시 용납할 수 없다. 과학 기술적 지식이 없이 조국과 인민과 혁명을 위해 기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완강하게 인내성 있게 과학 기술을 배움으로써만 생산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으며 당과 조국에 보답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정치 학습과 기술 학습을 결합함에 있어서 정치 학습의 선도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모든 청년들은 당 정책과 맑스-레닌주의 학습을 앞세워 가면서 과학과 기술을 배워야 한다.

우리 청년들이 정치 학습과 기술 학습을 강화하자면 첫째로, 학습의 목적과 관점을 옳게 세워야 한다.

우리들이 진행하는 학습의 목적은 개인의 협소한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이 준 혁명 임무를 보다 훌륭하게 수행하는 데 있다. 이러한 고상하고 영예로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는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하며 온갖 열성과 창발성을 다하여야 한다.

우리는 계획적으로 학습하여 혁명적 량심을 축적하고 혁명적 무기를 단련하면서 자기 사업에 헌신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로, 정치 학습과 기술 학습을 밀접히 결합시키며 이에서 정치 학습을 앞세워 나가야 한다. 시기적으로 제기되는 당 정책과 맑스-레닌주의를 충실히 학습하며 혁명 전통 학습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김 일성 동지의 교시와 당 정책을 체계적으로 심오하게 연구 체득하여 그를 실생활에 옳게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함으로써 자기의 사상을 개조하며 공산주의적 품성을 지니기 위한 수양을 부단히 쌓아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누구나 기술 학습에 전심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술 학습에서는 물리, 화학, 수학, 생물학 등 기초 과목 지식을 충실히 습득하며 현대 과학이 달성한 성과들과 자기 전문 분야의 기술을 배우는 데 전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습과 생산 로동, 리론과 실천을 옳게 결합하며 기술적 창안과 발견, 발명에 적극 참가하며 기술 혁신과 생산성 제고에 적극 기여하여야 한다.

세째로, 학습 규률을 제고하고 학습 열의를 부단히 높이며 분초를 아껴 학습하는 기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습은 깜빠니야적으로 진행해서는 결코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학습하면서 과학 기술의 요새를 점령하기 위하여 부단히 전진하여야 한다.

학습은 혁명하는 사람의 첫째 가는 임무다.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기회를 리용하여 학습하여야 한다.

바로 이것이 자기의 혁명 임무를 더욱 훌륭히 수행하는 길이며 자신을 당의 붉은 혁명 전사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는 길이다.

《글공부하는 사람들의 자식들이 자기 나라의 고전을 알지 못하고 선배들이 리론들에 숙달하지 못한다면 제 아무리 그의 지식이 뛰여 났다 하더라도 이는 한갖 거치른 무지의 처지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정 약용—(丁若鏞)

주…정 약용(一七六二~一八三六)은 一八 세기 말~一九 세기 초 우리 나라가 낳은 위대한 사상가이며 백과 전서적 학자이며 진보적 작가이다.



행복에 대한 말

편 집 부 앞

요사이 우리 청년들 속에서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행복을 두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나누는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들 사이의 이야기는 진지한 론쟁의 세계에까지 미치기도 합니다.

그것은 가끔 우리들 사이에 행복에 대한 엉뚱한 생각들이 튕겨 나올 때에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나는 론쟁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한 정확한 리해를 갖고 있지 못 합니다.

그리하여 편집부에 다음과 같은 문제를 문의하니 해답하여 주기 바랍니다.

첫째, 그 어떤 굉장한 것을 발견하여 세상 사람들을 경탄시키며 후세에 이름을 남기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동무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젊은 시절에 있을 수 있는 남녀 간의 사랑을 행복하다고 하는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째, 참된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네째, 참된 행복을 지닌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함경북도 영안군 하평 협동 농장 최 철웅

—— ☆ ——

편집부는 최 철웅 동무의 이상과 같은 질문과 관련한 김 병훈 동지의 글을 아래에 게재합니다.

먼저 나는 동무들 사이에서 벌어졌다는 론쟁에 한 몫 끼이면서 한 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론쟁, 이러한 론쟁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생활이야말로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하고 나는 먼저 생각합니다. 서뿔리 서두에서부터 행복이 무엇이라고 결론은 내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명백한 것은 행복은 우리들의 생활 속에 충만되여 있는 것이 아닐가요.

우리의 조상들은 평생을 뼈빠지게 일하고 악을 쓰며 살았지만 행복의 그림자도 구경한 적 없었으며 행복이란 무엇인가고 생각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오늘을 살고 나서 래일을 내다볼 수 없었으며 조반을 먹고 나면 점심을 바라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행복에 대하여 말들을 합니다.

행복! 참 얼마나 격동적이고 폭 넓고 웅심깊은 뜻을 가진 말입니까? 뭐이라고 한 마디로 꼭 집어서 그 뜻을 표현해 버리기에는 너무도 벅차고 아름차고 아쉬우며 그렇다고 막연히 쳐다만 보기에는 너무도 몸에 가깝고 심장에 가까운 말이 아닙니까.

철웅 동무, 그러면 동무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나의 의견을 말해 보겠습니다.

첫째 문제, 그 어떤 굉장한 것을 발견하여 세상 사람을 경탄시키며 후세에 이름을 남기는 것이 행복이겠는가 아니겠는가?

물론 그것은 행복일 수도 있습니다. 가령 임진 조국 전쟁 때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철갑선인 거북선을 만들어 가지고 왜적을 남해의 사나운 물 속에 처 넣고 조국을 수호하여 그 이름을 후손만대에 전하여 오는 리 순신 장군이나, 처음으로 우리 나라에 목화를 재배한 문 익점 선생으로부터 비날론 섬유를 발견한 리 승기 박사에 이르기까지 그 밖에도 인류에게 오늘의 문명과 과학 기술을 가져다 준 모든 발명가, 발견가들은 후손들의 흠모를 받는 행복한 사람들일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까닭은 먼저 굉장한 발견이나 발명이라 할지라도 인류에게 해독스러운 것이며 지배 계급이나 침략자의 리익에 복무하는 도구나 무기일 때는 후세에 이름을 남긴다 하더라도 추악하고 가증스러운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측면으로는 발명이나 발견 그 자체가 곧 행복이며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발명가나 발견가가 아닌 많은 사람은 결국 일생에 행복을 손 안에 쥐여 보지 못하고 말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론리로는 우리 시대의 영웅들인 리 수복이나 길 확실, 리 신자 같은 사람들의 행복을 설명할 수 없으며 지금 우리 공화국 북반부 전체 인민들이 체험하고 있는 행복도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행복은 단순한 생활의 그 어떤 표현 형태인 것이 아니며 그의 본질은 보다 내면적이며 표현은 보다 다양한 것이 아닐가요.

둘째 문제, 남녀 간의 사랑이 행복이 아니냐고 하는 문제도 역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행복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되면 평생 길 동무할 훌륭한 애인을 바라게 되며 그래서 정말 좋은 애인을 만나 서로 도우면서 살아 나간다면 그것이 어찌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물론 이 경우에 있어서도 참다운 사랑일 때에만 행복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면 옛날의 《설랑과 가실》, 《온달과 평강 공주》, 《도미와 그의 처》, 《춘향과 리도령》 등의 이야기들에서 알고 있는 사랑들만 두고 보아도 그렇습니다. 왕녀인 평강 공주는 아버지인 왕의 반대를 박차고 바보라고 불리우는 온달에게 시집 가서 평생을 함께 살며 온달이 나라의 큰 기둥으로 발전하는데 자기의 모든 심혈을바쳤던 것입니다.

그것은 옛'이야기라 치고 오늘날 혁명의 격류 속에서 서로 맺고 서로 도와 두 힘을 합하여 혁명에 더 큰 이바지를 하려는 청춘들의 참다운 사랑은 마땅히 행복하며 아름다운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말하자면 젊은 시절의 행복일 수는 있지만 그것 역시 우리 세대가 누리며 또 체험하고 있는 행복의 총체를 놓고 볼 때 너무나 적은 부분이 아닐가요.

철웅 동무, 우리는 동무들 사이에서 제기된 두 가지 문제 설정, 굉장한 발견이나 남녀 간의 사랑들은 행복일 수도 있으나 행복의 하나의 개별적 부문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동무의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 가서 과연 참된 행복이란 무엇일가요.

고대광실에서 호의호식하고 사는 것이 행복일가요? 결코 그것은 행복일 수 없습니다. 지주나, 자본가들처럼 남의 고혈을 짜서 그것으로 제 배에 기름을 지우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처럼 가련하고 무지하고 수치스럽고 불행한 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민들과 같이 당의 위대한 령도를 받들고 제 손과 제 심혈로 모든 재부를 창조하여 나라와 인민의 행복 속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으며 누리는 것이 참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철웅 동무.

행복에 대한 개념은 이제 따로 말할 것 없이 이상 말씀 드린 가운데서도 넉넉히 끄집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이란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력사적 사업인 우리 당의 혁명 위업에 복무한다는 그

자각이며, 혁명에 복무한다는 자각 또한 혁명 앞에 무엇이든 자기의 모든 심혈을 기울인 창조물을 (그것이 크던 작던) 바친다는 자각이 아닐가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칼, 맑스 선생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투쟁》, 위대한 력사를 변혁시키는 혁명 투쟁에 참가하여 조국의 력사와 인류의 력사를 공산주의 대로에로 밀고 나간다는 이 벅찬 투쟁에 대한 자각이 곧 행복감이 아닐가 하고 나는 생각합니다.

발견도 자랑도 물질적 재부도 이 투쟁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로동당 시대에 사는 우리들, 모든 젊은 세대가 그가 어느 곳에 살건 무엇을 하건 행복 속에 산다는 것은 투쟁을 통하여 오늘을 쟁취하였으며 투쟁을 통하여 더욱 광휘로운 래일을 쟁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이란 직업에 따르는 것도 아니며 반드시 뛰여 난 그 어떤 사변을 일으켜 후세에 이름을 남기는 것 자체도 아닙니다. 오직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혁명 초소에서 자기의 전투 임무를 꾸준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때 행복은 이루어집니다.

길 확실 동무나 리 신자 동무를 보십시오. 그들은 처음부터 무슨 거대한 사변을 일으키려고 계획하고 사업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다만 자기의 《적은》 혁명 초소에서 맡겨진 당적 과업을 꾸준히 집행하는 가운데 그것이 쌓여 큰 공적으로 되였고 인간 개조의 불씨를 일으켜 전국에 불'길로 타번지게 하였습니다. 그러하여 그들은 굉장한 발명이나 발견은 아닐지라도 후세에 길이 이름을 남길 업적을 쌓아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름을 후세에 남기는 문제 역시 그러한 직업이나 정황이나 사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언뜻 보기에 작고 하찮 것 없는 일 같은 우리들 모두의 로동과 사업과 생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로동, 로동이야말로 오늘 우리 혁명 과업 수행에서 값높은 투쟁이며 로동의 위훈이야말로 가장 긍지 높은 행복이 아닐가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또한 행복이란 단순한 창조의 결과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은 결과이기 보다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 그것은 어느한 결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쉴 줄을 모르는 투쟁, 부단한 전진 운동, 계속 혁명, 계속 혁신의 세찬 투쟁 속에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의미에서 백두의 밀림 속에서 15여 성상 혈에 겨운 원쑤와 싸워 이긴 항일 빨찌산, 오늘은 조국의 륭성 발전의 길을 선두에 서서 걸어 나가시는 그들 혁명 투사들이야말로 가장 크낙한 행복의 구현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투사들이 우리에게 오늘을 쟁취하여 물려 주기 위해 만주 벌판의 험한 산과 들에 이름도 없이 쓰러졌겠습니까. 그들은 총을 쥐고 원쑤의 가슴팍을 찌르면서 그리고 그 어느 벌판과 밀림 속에 쓰러지면서 후세에 이름을 남길 것을 바라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이들의 이름과 공훈은 영원불멸하며 그 이들은 행복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혁명 투쟁은 우리 세대의 온 생애를 두고 있을 것이며 그런 것만큼 행복도 또한 온 생애를 통하여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남반부 땅에서 미제를 쓸어버리고 그의 주구들을 소탕하고 남반부 인민들을 구원하고 조국을 통일하며 삼천리 강토 우에 공산주의를 건설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전 세계에서 제국주의를 청산하고 인류의 영원한 락원—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해야 하는 것입니다.

철웅 동무, 바로 우리 세대의 행복이란 이러한 크낙한 투쟁 속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니 동무가 제기한 네번째 질문에 대하여도 다 이야기된 셈입니다.

단 한 가지만 첨부한다면 우리가 참된 행복을 지닌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훌륭한 공산주의적 풍모를 가져야 하며 수양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덮어 놓고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맑스-레닌주의 세계관, 우리 당의 정책으로 무장하며 계급적 립장을 튼튼히 세우고 선진 과학 기술을 갖추고 풍만한 인간성, 고상한 도덕, 높은 문화성을 다 겸비할 때 우리는 투쟁에서 백전 백승의 용사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나라 민족 무용의 자랑

공훈 배우 김 제 홍



우리 나라 민족 무용은 유구한 력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바 그 기원에 있어서나 발전 과정이 대부분 인민들의 창조적인 로동 생활과 밀접히 결합되여 있다.

원시 수렵 시대에 있어서는 맹수를 제압하며 맹수의 성질과 특성을 잘 리해하여 수렵의 성과와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렵 무용 형태가 생겨 났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 북부 산간 지대에는 《호랑이 춤》, 《곰 춤》, 《사자 춤》 등 기타 동물 춤이 고대 시기부터 있었다.

우리 나라에는 고대로부터 이 수렵 무용과 함께 군사 무용이 성행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군사 무용은 그 춤에 참가하는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용감하게 출전하여 전승할 것을 맹세하는 감정이였으며, 또한 출전하는 용사들을 고무하기 위한 행사이며 전투의 승리를 위한 전술 훈련과 그의 묘기를 시위하는 행사였다.

우리 나라 민족 무용이 고대로부터 군중적이며 가장 집단적으로 발전한 형태는 각종 명절놀이에서 뚜렷이 반영되고 있다. 옛날 고구려와 부여, 백제 등에서는 곡식을 거둬 들인 후 전 종족이 떨쳐 나와 해'곡식으로 하늘에 제사하고 련일 음식을 나누며 노래와 춤으로 즐겼다고 한다. 이 때 인민들은 춤과 노래를 통해서 자기들의 로력적 성과들을 기뻐했고 농업 생산에서의 기쁨과 경험들을 교환하면서 생산 과정에서 맺어진 인간들의 아름다운 정서 심리 상태를 표현하였다.

노예 사회와 봉건 사회에 들어 오면서 무용을 포함한 모든 정신 문화 수단들은 통치 계급들의 독점물로, 향락물로 되고 근로 인민들은 다만 과중한 노예 로동만 강요 당하였다. 그러나 근로 인민들은 이 과중한 노예 로동 과정에서도 자기들의 생활 감정과 성격, 사상을 반영한 생동하고 진보적인 문화 예술을 창조하였는바 이 모든 것은 우리 시대에 와서 민족적이며 향토적인 인민 무용의 제 유산으로 전면적이며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되고 있다.

우리 나라 민족 무용 유산들은 그 내용과 사상성에 있어서 진보적이며 인민적인 성격과 그들의 생활 긍정적 지향이 뚜렷하며 그 형식과 표현 수단들이 다양하고 풍부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예술적으로 세련되여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 나라 민족 무용 유산들은 대체로 민속 무용, 궁전 무용, <종교적> 형태의 무용 등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민속 무용은 근로 인민들의 창조적인 로동 생활 과정에서 발생 발전한 춤들이다. 우리 나라 민속 무용은 그 종류와 형식에서 다양하고 모두 자기의 독특한 개성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상 주체적 내용이 심오하고 인민적 성격과 락천적인 열정이 아주 강하다. 동시에 우리 나라 민속 무용들은 률동 동작들이 매우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높고 세련된 기교들로 충만되고 있다.

민속 무용은 전국적인 것과 그 지방에 고유한 향토적인 것들이 있는데 전국적인 범위에서 류포되고 있는 춤들로서는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농악무와 각종 가면무들을 들 수 있다.

고유한 향토적인 무용 형태들로서는 함경도 지방의 《돈돌나리》, 《홀라리》, 《두레놀이》, 《접시춤》, 《도도리 춤》, 《녀진족 춤》이 있으며 량강도, 자강도 지방에서는 《수박춤》, 《포수 춤》, 《룡북놀이》, 《광부 춤》 등을 들 수 있다. 평남도 지방에는 《망석 마리 춤》, 《모닥불 춤》, 《박 춤》, 《조개 춤》 등을 들 수 있고 호남과 령남 지방에는 《강강수월래》, 《돗배기 춤》, 《챙강 춤》, 《남사당 춤》 등을 비롯하여 기타 지방에도 각기 자기 지방에 고유한 여러

가지 향토 민속 무용이 열마든지 있다.

민속 무용의 사상 주제적 내용을 보면 우선 모든 춤이 인민들의 로동 애호 사상과 근면성, 생활 긍정과 미래에 대한 락천적인 정서와 사상으로 충만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춤 곡목들은 각기 자기 지방의 자연 지리적 특성에 기초하고 있으며 자기들의 로동과 생활 행정에서 체험한 정서와 감정을 개성화된 풍부하고 다양한 률동 동작으로 소박하고 진실하게 표현하고 있다.

둘째로, 이 모든 춤들에는 조국과 조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슬기로운 인민의 기상들을 열정적인 사랑과 긍지를 가지고 생동하게 표현하고 있다.

세째로, 민속 무용들에서 표현되고 있는 사상 주제들은 봉건 지배 계급들의 착취와 압박에 대한 증오와 울분과 함께 투쟁과 반항의 열정, 그들에 대한 조소와 야유의 감정과 내용들이 풍자적이며 회화적인 혹은 상징적이며 가상적인 수법을 통해서 아주 예리하고 로골적으로 또는 음폐된 형식을 통해서 심오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반면에 근로하는 인민 대중의 진정한 성격적 면모들인 근면성, 용감성, 소박성과 우애심, 희생성 등이 춤의 형상속에서 명료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하고 풍부한 사상 감정과 락천적인 성격들은 로동 과정에 대한 형상적인 표현 형식을 통해서, 혹은 단조로운 가무 형식으로도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현대의 전문적인 무용가들도 쉽사리 습득하기 어려운 높고 다양한 기술적 묘기와 경탄할만한 기술적 숙련과 원숙성으로 보여 주는 것도 있다.

궁전 추용 형태는 과거 봉건 귀족 사회의 궁전 황실에서 봉건적 통치 계급들의 감상과 의식 행사 진행의 한 형식과 수단으로 보존되여 온 무용 형태들이다. 그의 구체적인 실례로써는 《처용무》, 《학춤》, 《봉황춤》, 《련화춤》, 《향발무》, 《무고》, 《포구락》, 《검무》, 《유선희》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이 무용들은 모두 궁전 황실의 고전적



풍격과 생활 정서들을 반영하고 있으며 춤의 주제들은 궁전적 생활 내용과 함께 신화적이며 환상적인 이야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많다.

궁전 무용의 특징은 매 곡목마다 출연의 계기와 순차성이 규정화되고 고정되고 있는 것이다. 출연자들의 거의 대다수는 모두 녀성으로 되고 있으며 무용 곡목마다 규정된 화려하고 현란한 의상을 착용하고 례외 없이 거의 모든 춤들이 각이한 소도구 리용이 많은 것이다.

우리 나라에 <종교적> 무용 형태는 그리 많지 않다. 종교적 무용 형태에는 승무, 법고, 바라, 나비 등 불교 계통의 성격을 내포한 무용 유산들과 《무당》들의 《굿놀이》(미신적인 행위) 계통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종교적 형태의 모든 춤들은 그것이 불교적인 것이건 무당들의 것이건 간에 모두 그 유산들과 수법과 그 형식의 원천은 인민들이 창조한 민족 문화 유산에 있는 것이고 이로부터 모두 빌려다가 자기들의 목적에 맞게 리용한 것이다. 종교적 무용 형태들은 모두 인민들의 정신 문화적 수단과 그 성과에 토대하고 인민 문화 유산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 민족 무용 유산들은 그 어느 나라에 비해 보아도 가장 풍부하고 다양한 무용 동작과 률동 그리고 그 기교들이 아주 세련되고 높은 것으로 특징적이다.

우리 나라 민족 무용은 동양과 구라파 민족 무용들의 모든 표현 수단들을 한꺼번에 다 소유하고 있는바 화려하고 다양한 팔 동작과 약동적이고 다양한 발 동작들을 모두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춤 동작과 률동들이 아주 세련되고 표현적이며 예술적인 홍취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무용들은 그 어떤 제한된 조건적이며 약속된 동작들이 없고 어떠한 감정과 성격도 선명하고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으며 그것들은 우리 인민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쉽게 그리고 명확하게 리해될 수 있는 현대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 나라 민족 무용들은 대단히 품위 있고 점잖고 예술적인 것이 특

징이다.

우리 나라 민족 무용을 가지고서는 인간 성격과 모든 생활적 내용들을 다 원만하게 감동적이며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다. 때문에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벌써부터 아직 다른 나라에서는 할 수도 없고 현재 시도를 해 보는 정도인 민족 무용극을 수십 편이나 자유롭게 창조해 내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 민족 무용은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발전하여 왔는바 이 모든 성과들은 1930 년대와 항일 빨찌산들에 의해서 더욱 점차적으로 계승되였으며 비로소 인민성과 혁명적 사상이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구현되는 사회주의 사실주의 무용, 문화로 더욱 높이 발전하게 되였다.

실로 항일 유격 투쟁 시기에 있어서 무용 예술은 음악, 연극과 함께 혁명 승리의 강유력한 사상적 무기로서 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의 투쟁 정신과 혁명적 락관주의를 표현하는 가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복무하였다.

항일 유격대원들은 민족 무용의 언어 수단들을 통해서 현실 생활을 진실하고 감동 있게 묘사하는 사실주의 창작 방법의 모범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의 구체적인 실례로서는 당시에 창작되여 인민들과 빨찌산들에게서 항상 열렬한 환영을 받던 가무 《13 도 자랑》, 《단심'줄》과 밀영들에서의 다양한 춤들을 들 수 있다. 특히 《단심'줄》은 당시 경애하는 수상 동지께서 직접 구상하시고 지도를 하신 아주 의의 깊은 작품이다.

이와 같이 유구한 민족 무용 유산과 혁명적 무용 유산을 계승한 오늘 우리 시대의 무용 예술은 당과 경애하는 수령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우리 인민들의 천리마 기상과 시대 정신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계속 전진하고 있다.

우리 무용은 오늘 우리 시대의 생활과 천리마 기수들의 전형적인 생활과 성격들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형상함으로써 민족 무용 예술에서 현대성을 구현하는 면에서도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고상하고 진보적인 인민의 지향과 락천적 감정이 훌륭하게 체현된 우리 나라 민족 무용은 해방 후 우리 당의 정확한 문예 정책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풍부한 민족 무용 유산들을 옳게 계승 발전시켜 사상 예술성이 높은 무용 작품의 창조 과정을 통해서 오늘과 같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게 되였다.

우리 당의 정확한 령도 밑에 개화 발전된 우리 무용 예술의 높은 성과에 대하여 세계 인민들은 깊은 감동과 열렬한 사랑을 가지고 《어둠을 밝혀 주는 홰'불과 같은 예술》이라고 찬양하고 있다.

청년생활 소사전

건조냐? 소독이냐?

해가 쨍쨍 내리쪼이는 맑은 날이면 사람들은 침구나 의복들을 밖에 내다가 해'빛에 쪼인다.

《그건 어째 합니까?》 하고 물으면 흔히 《누기가 차서 말리우려고,》 하고 대답한다.

그러면 해'빛에 침구나 의복들을 내다 쪼이는 것은 그저 단순히 그것을 건조시키는 데만 의의가 있는가? 아니다.

해'빛은 거의 미생물들을 죽인다. 특히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병균)들은 해'빛만 쪼이게 되면 수 시간 내에 죽어 버린다.

이것은 해'빛 중에 있는 자외선이 미생물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자외선 중에서도 파장이 250~260 미리미크론 되는 부분이 미생물을 죽이는 힘이 제일 강하다.

외부 환경 조건에 대하여 저항성이 강한 결핵균도 직사 광선을 작용시킬 때에는 45~50 분 후, 분산 광선을 작용시킬 때에는 8~10 일 후에 죽는다. 우리는 이런 해'빛의 살균 작용을 리용하여 침구와 의복들을 소독하게 된다. 그러니 우리가 침구나 의복 등을 해'빛에 내다 쪼이는 것은 건조도 건조려니와 그보다 중요하게는 소독이다.



애국 청년
사다함 장군

김 증식



사다함은 마음이 바르고 애국심이 강한 신라의 용맹한 화랑(신라 때에 귀족 출신의 청소년들로 조직한 군사적 훈련과 도의의 련마를 목적으로 한 집단 또는 그 중심 인물로 뽑힌 사람)이였는데 그는 청년 시기에 벌써 1천 여 명의 랑도를 거느리고 있었다.

때는 그가 16 세 되던 기원 562년 9월이였다. 이 해 신라의 이웃 나라인 가락국(가야)이 불의에 군사를 일으켜 나라의 서남 변방을 침습하여 왔다.

이 때 신라 진흥왕은 장군 아사부를 총지휘관으로 하여 군사를 일으켜 가락국의 군사를 물리치도록 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청년 사다함은 왕에게 이 번 싸움에 자기와 더불어 자기의 랑도들을 모두 출전시켜 줄 것을 간청하기 위해 왕궁으로 찾아 들어 갔다.

«가락국이 우리 나라 서남 변경을 침노하였다 하오니 소인은 신라의 화랑의 한 사람으로서 적을 물리쳐 싸우고저 하옵니다. 대왕께서는 소인의 뜻을 이루도록 출진을 허락해 주시기 바라옵니다.»

왕 앞에 허리를 굽히고 앉은 사다함은 이미 갑옷을 입고 허리에 칼을 찼고 긴 활을 오른손에 잡았으니 그는 벌써 빈틈 없는 무장을 갖추고 있었다.

왕은 한참 동안 사다함을 보다가

«너의 애국 충성은 지극하나 아직 나이 어리고 몸이 약하니 이 다음 나가는 것이 옳으리라.» 하면서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다함은 물러 서지 않았다.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마당에 어찌 나이가 많고 적음을 탓하겠습니까?» 하니 국왕은 드디여 청년 사다함을 비장(부지휘관격)으로 임명하여 출진케 하였다.

사다함은 곧 자기 충천한 랑도들과 더부러 이사부를 따라 출전하였다. 신라군이 가락국의 국경에 도착했을 때 사다함은 대장 이사부를 찾아 자기를 선봉에 서도록 해 줄 것을 간청하였다.

이사부는 곧 사다함을 선봉대장으로 임명하였다. 선봉군은 가락국의 가장 큰 요새인 전단량을 돌파해야 할 임무를 맡았다. 전단량을 돌파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것은 승패를 좌우하는 첫 싸움이였다. 사다함은 랑도들과 더부러 작전을 토의하고 요새에 대한 기습전을 진행할 것을 계획하였다. «전단량을 단숨에 돌파하자!» 이렇게 맹세를 다진 랑도들은 사다함의 지휘 하에 밤을 타서 전단량을 기습했다. 불의의 공격을 당한 가락국 군사들은 겁을 먹고 흩어지니 전단량의 성문에는 얼마 후 신라군의 기'발이 나붓기였다.

이 싸움에 패한 가락국은 그 후 신라에 통합되여 한 나라로 되였다.

싸움이 끝난 후 국왕은 사다함의 큰 공로를 치하하면서 «이 번 싸움에 큰 공을 세운 너에게 포로 300 명을 주니 너의 종으로 부려 먹으면서 일생 영화를 누리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청년 사다함은 상을 받을만한 공을 세우지 못했으니 포로를 받을 수 없다고 사양하였으나 왕이 굳이 강요함으로 그는 일단 포로를 받았다.

그는 원래 놀고 먹는 귀족들이 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종으로 천대하면서 소나 말처럼 부려 먹는 것을 미워하였다. 그런 사다함인지라 포로 300 명을 다리고 나와서는 모두 자유로운 몸으로 해방시켜 주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다시 그에게 많은 땅을 상으로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다함은 이 번에도 사양하면서

«대왕이 소신에게 베푸신 거듭되는 론공은 과분한 일로 아뢰오며 더구나 논과 밭은 천하 백성들이 다 같이 고르게 나누어 가져야 할 것이니 어찌 한두 사람이 많은 땅을 가지오리까!»라고 아뢰였다. 왕은 사다함의 거절을 용서치 않고 굳이 땅을 받을 것을 명하였다. 사다함도 더는 사양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자진하여 개간되지 않은 척박한 땅을 달라고 하여 척박한 미간지를 약간 받았을 뿐이였다.

그는 척박한 땅을 받은 후 자기의 랑도들과 더불어 이를 힘껏 개간하여 농사를 지으면서 마침내 옥토로 만들었다. 이러한 청년 사다함의 기특한 품성과 애국심은 후세에까지 사람들의 입을 길이길이 전해 내려 왔다.

청년 장군 김 유신



김 유신은 신라 북부 만노군(지금의 충청북도) 태수(군수) 김 서현의 아들로 태여 났다. 김 유신은 어려서부터 성품이 강직하고 활달하며 포부가 커서 15 세 때에 화랑이 되였다.

김 유신이 나서 자라던 시기는 우리 나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세 나라 지배 계급들이 제각기 더 많은 땅을 얻기 위해 빈번히 전쟁을 일으키고 있었다. 이 때 외적인 당 나라나 왜구(일본)들도 우리 세 나라가 서로 약해지는 기회를 타서 침략해 보려고 흉계를 꾸미고 있었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청년 김 유신은 김 춘추 등 젊은 정치 활동가와 더불어 장차 3 국이 통일되여 하나의 강국을 이루도록 힘 써 보자고 자주 토의하군 하였다.

«같은 조상을 가진 우리 백성이 세 나라로 나뉘여져 서로 싸우는 것은 불합당한 일이오니 3 국을 장차 하나의 나라로 통일시켜야 한다.» 이것이 김 유신의 념원이였다.

그가 17 세 되던 해였다. 이 해에도 고구려, 백제, 말갈 등이 신라를 침범해 왔다. 이를 본 김 유신은 원쑤 격멸의 뜻을 품고 산에 들어 가 무술과 자체 수양을 하다가 하늘에 맹세하기를

«적들이 무도하여 이리나 범과 같이 우리 나라를 침노하니 무사한 해가 거의 없습니다. 내가 한 개 어린 몸으로나마 국난을 구원하며 적군을 숙청하기로 결심하였으니 하늘은 나를 도와 주소서!»라고 하였더니 얼마 후에 웬 로인이 와서 말하기를 «너 비록 나이는 어리나 3 국을 통일하려는 뜻이 있으니 장하다.» 하면서 비결을 대주었다고 한다.

이 설은 유신의 어린 시절의 뜻과 그가 무술 련마를 위해 심산에 들어 가 침식을 잃고 훈련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말해 주는 전설이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고구려 군사가 신라를 침범하여 왔을 때 그는 아버지를 따라 랑비성에서 적을 물리치는 싸움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이 첫 싸움에서 신라군이 패하게 됨을 보자 유신은 곧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 투구를 벗고

«우리 군사가 패하였습니다. 소자는 화랑으로 평소에 충효로서 나라와 부모님께 보답코

져 하였으니 이 시각에 적과 싸워 국난을 구하고야 말겠습니다.» 하고는 이어 말을 타고 칼을 뽑아 들고 갱도를 뛰여 넘어 적진으로 들어 가서 적장의 머리를 베여 들고 왔다. 이를 본 신라 군사는 크게 고무되여 모두 총돌격하니 이 싸움에서 신라는 큰 승리를 이룩하였다.

김 유신은 이처럼 청년 시기부터 수 많은 전투에 직접 참전하여 큰 공훈을 세웠다.

한 번은 또 이런 일이 있었다. 김 유신은 백제군이 국경을 침범해 왔다는 정보를 받고 군사를 거느리고 싸움터로 나가 큰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였다. 이 때 유신은 국왕 앞에서 전승 보고를 올리였으나 그 보고를 채 끝마치기도 전에 또다시 백제 대군이 침습해 왔다는 급보를 받게 되였다.

전승 보고를 듣고 있던 국왕은 백제군의 래습을 알리는 신하의 급보를 들으면서 유신의 얼굴을 바라 보고 묵묵히 앉아 있었다. 이 때 장군은 «왕이 출전을 명하신다면 죽기로써 싸워 국토를 보위하겠나이다.»고 하니 왕은 유신의 손을 굳게 잡아 주었다. «나라와 백성의 운명을 경에게 또 부탁하오.» 하는 왕의 말을 듣기도 바쁘게 또다시 전선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의 휘하의 장병들도 장군의 뒤를 따랐다. 청년 김 유신 장군은 전투에서 피로한 몸을 쉬일 새도 없이 길'가에서 50 보도 못 미치는 자기 집 앞을 그 대로 전선으로 출동하였다.

이것을 본 부하 병사들은 «대장군이 자기 집을 지척에 두고도 들리지 않으니… 우리 모두 장군을 따르자»라고 다짐하였다.

김 유신 장군은 660년 국토 통일을 달성하고저 부패 무능한 백제를 공격하여 백제 인민들과의 통일을 달성케 하였다. 그러나 이 때 당나라 군대도 신라와 협동한다는 구실로 백제 지역에 상륙해 왔다. 신라와 당 나라는 백제 수도를 공격할 기일을 약정하고 군사 행동을 개시했으나 당시 신라군은 백제군과의 황산'벌(지금 충청남도 련산)에서의 격전 때문에 약속한 기일보다 늦게 되였다. 이에 당 나라는 신라군의 부사령관 격인 김 문영 장군을 규률을 어겼으니 처형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이 때 김 유신은 당 나라의 침략적 야망을 간파하고 분개하면서

«황산'벌 싸움을 아지도 못 하고 시간을 어기였다는 것을 트집 잡으니 우리 어찌 죄 없이 치욕을 받을 수 있겠는가? 반드시 당신네 당 나라 군사와 먼저 싸워 결판을 내고 백제와 싸울 것이다.»라고 하면서 칼을 들어 쥐니 당 나라 군의 지휘관도 장군의 위엄 있는 태도 앞에서 질겁하고 그만 사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과 당 나라의 어리석은 기도는 파탄되였으며 신라마저 침략하려 든 당 나라는 그 후 드디여 우리 강토에서 추방되고 3 국 통일이 이룩되였다.

청년 과학자, 명장
최 무선

최 무선은 원래 경상도 영천 사람으로서 1326년 개성에서 창고 일을 맡아 보는 관리 최 동순의 아들로 태여났다.

최 무선이 자란 시기는 우리 나라(고려)가 원(몽고) 나라와 왜구(일본 해적단)를 비롯한 외래 침략자들을 몰아 내는 간고한 투쟁을



전개하던 시기였다.

특히 당시 왜구들은 수십 척 또는 수백 척의 배로 해적단을 지어 우리 나라 연해 각지에

기여 들어 략탈, 파괴, 방화, 랍치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왜적이 연해 지방에 올라서 갖은 만행을 다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린 최 무선의 가슴 속에는 놈들에 대한 증오의 불'길이 세차게 타 올랐으며 반드시 왜구들을 섬멸하기 위해 위력 있는 무기를 연구해 내고야 말겠다는 결심을 다지군 하였다.

그의 이러한 결심은 그가 26 세 되던 1350년에 왜구들의 대대적인 침입을 직접 겪은 후 더욱 강하게 다져졌다.

«3 면이 바다인 우리 나라는 바다에서 왜구들을 섬멸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 내야 한다.»

이것이 최 무선이 품은 생각이였다.

그는 적을 바다에서 섬멸하기 위해서는 해군이 강해야 하는바 해군은 반드시 적의 배를 불살라 버릴 수 있는 화약과 대포로 장비되여야 한다는 것을 점차 깨닫기 시작하였다.

이 대부터 청년 최 무선는 화약을 연구하는 일에 몰두하였다. 그는 국내 여러 사람들을 찾아 화약 제조법을 물어 보았으나 당시 고려에서는 화약 제조법을 아는 사람을 구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먼 외국에서 오는 무역선이 례성강에 올 때면 례성강'가에 나가 그 누구를 불문하고 물어 보았으나 화약 제조법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화약을 만들어야 왜구를 섬멸할 수 있고 왜구를 섬멸해야 백성들이 편안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인들 그 얼마나 많았던가!

그 후 그는 자기 집에 조그마한 실험실을 꾸며 놓고 실험에 실험을 거듭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리 원이란 사람을 통하여 염초를 가지고 화약을 만든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염초를 제조하는 기술을 알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우선 염초를 생산하는 일에 착수했다. 이른 아침부터 밤 늦도록 그는 실험실에서 살았다. 원쑤에 대한 증오의 정신으로 그는 자기 집 재산을 모조리 들여 가면서 연구를 거듭하였다.

원쑤의 침입으로부터 나라와 백성을 구원하고저 하는 그의 단심 앞에 무엇인들 머리를 숙이지 않았으랴! 드디여 최 무선은 1373년 10월 어느 날 국내 원료로 염초를 얻어 내는데 성공했으며 그를 원료로 하여 위력 있는 화약 제조에 성공하였다.

최 무선은 곧 정부에 화약을 대대적으로 만들 것을 제기하였다. 처음에 일부 관리들은 그의 제의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나 실지 화약의 위력을 본 다음에야 화통 도감이라는 화약 제조 기관을 창설케 하였다.

최 무선은 화약 제조소의 책임자가 되여 수 많은 화약을 만들어 냈으며 화약을 쏠 수 있는 위력 있는 대포와 그를 장비할 새 군함(함선)도 설계해 냈다.

최 무선에 의해 창조된 대장군포, 질려포 등 각종 대포와 화전 (불 화살) 등은 역시 그가 만든 5 종의 포탄과 함께 고려의 해군력을 비상히 강화하였다. 이리하여 청년 발명가이며 애국자였던 최 무선의 념원은 드디여 실현되였다.

1380년 8월이였다. 이 해에 오만한 왜적들은 500 척의 함선을 몰고 전라도 진포 앞바다에 로략질을 하기 시작하였다. 고려 정부는 최 무선을 부원수(부 사령관)로 하여 화포와 총통으로 장비된 새 군함 80 척을 거느리고 출동케 하였다. 드디여 복수의 시각은 왔다.

진포 앞바다로 출격한 우리 함선은 적 함선을 향해 일제히 화포와 총통을 쏘아 대였다.

«쾅! 쾅!» 천지를 진감시키는 요란한 소리와 더불어 위력 있는 포탄은 적선에 련'이어 명중하였고 적함을 휩싼 불'길은 하늘을 찌를 듯 하였다.

이 날 싸움에서 왜선 500 척은 한 척도 남지 않았으니 옛기록에는 «진포에 이르러 최 무선이 만든 화포로써 적선을 불사르니 연기와 불꽃이 하늘에 차고 배를 지키던 적들은 모두 타서 죽었다»라고 씌여 있다.

청년 과학자이며 애국자인 최 무선이 남긴 업적은 우리 나라 력사 상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직포공의 념원

송림시 식료 공장 민청원
원 시 형

제비 같이 나는듯 오가며
서른 대 직포기에 북실을 갈면
찰칵찰칵 꽃 비단을 짜는 북 소리 북 소리

들리여 오누나, 그 소리 속에
오늘도 내 가슴 울리며 울리며
진주 땅 어머니의 베 짜는 소리.

서산 마루에 달 기울어 들고
산촌의 닭들도 세 번을 울었는데
방등'불 가물대는 그늘 밑에서
밤 새워 찌궁찌궁 베 짜던 소리.

새벽까지 베 한 필 다 짜내면
래일 장에 좁쌀 한 되 마련된다고
철부지인 나를 달래 말씀하시던
꿈 속에도 그리운 어머니 모습.

그렇게 애써 짜신 보름새 베필들
폭마다 젖은 눈물 마르기도 전
지주놈은 빚값이라 빼앗아 가고
깡패놈도 세를 내라 다 털어 가고

아, 오늘은 진주 땅 초가막에
베 짜는 소리도 멎었으련만
하루에도 몇 백 번 그 몇 천 번
가슴을 파고 드는 베 짜는 소리

천 사람 만 사람의 행복을 수 놓으며
더 높이 울리누나 나의 직포기
이 소리 속에서 나의 행복이 창조되고
이 소리 속에서 나의 어머니도 맞으려니

더 많이 짜련다 천만 필 꽃 비단을
통일의 날 진주 땅 나의 어머니
걸음 걸음 찾아 오실 넓은 길 우에
열 겹, 스무 겹 펼쳐 놓을 비단을.

출발 직전에

평북 운전군 송학리 협동 농장 민청원
길 남택

이른 아침, 뜨락또르는 어서 떠나자고
자꾸만 퉁탕퉁탕 소리 질러도
혹시 그 어데 고장은 없는가?
다시 한 번 찬찬히 살펴 보는 이 마음—

힘껏 조인 볼트를 다시 조이며
요란한 엔진 소리도 분별해 듣노라면
—조이시오 조이시오 더 힘껏 조이시오!
부드럽게 타일러 주는 당의 목소리

별찮은 고장에 차를 멈출 때에도,
간혹 일'감이 없어 빈 차로 올 때에도
자신이 스스로 할 일을 찾아 하라고
항시 어머니처럼 일러 주는 당이여!

그 어느 볼트 그 어느 나사못 하나에도
오직 농민들의 힘겨운 일 덜어 주기 위해
간고한 건설의 나날, 푼전을 아껴 만든
당의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 있거니

참으로 귀중하구나 나의 뜨락또르여
너로 하여 농장원들 등'짐 벗어 던지고
너로 하여 해마다 땅이 꺼지도록
기름진 운전'벌에 만풍년이 들거니

내 어찌 순간인들 마음 늦추랴
하찮은 나사못을 다시 조여도
한 차의 두엄, 한 이랑의 땅이라도
와룽와룽 기운 좋게 더 갈리니

하기에 이 아침도 구슬땀 훔치며
내 온 정성 바쳐 예방 보수하노라
그 어느 볼트 하나를 조여도
팔뚝에서 우둑우둑 힘소리가 나도록

아, 뜨락또르는 어서 빨리 떠나자고
자꾸만 퉁탕퉁탕 소리 지르는데
하냥 다우치는 일'손도 느린 것 같은 이 마음
단번에 볼트를 두세 개 조이고 싶은 마음
이여!

콩트



번개

황해북도 신평군 협동 농장 민청원
장 기 섭

정오까지만 해도 쪼각 구름 한 점 없이 맑던 날씨가 저녁녘이 잡아 들면서부터 갑자기 돌변해졌다. 태양을 맞받아 시커먼 먹장 구름떼들이 꾸역꾸역 자꾸자꾸 밀려 들더니—그 구름장들의 여기저기 푸르죽죽한 경계에서는 난데없는 번개불이 은회색 갈지자(之)를 지으며 번쩍인다. 뒤따라 우뢰가 우르릉거린다.

미구하여 하늘은 푸른 반점 하나 없이 마치 먹물을 풀어 올린상이 되여 버린다.

변덕 심한 여름철 일기의 된 소나기 징조다.

창고장 병준 령감은 너무 급해나 연방 고함을 쳤다.

『비료가 한지에 있다—덧거름할 비료가 비에 녹는다—』

허나 작업반 전체가 먼 골짜 밭으로 김매러 나가 누구 하나 나올 사람이 없었다.

『금방 된 비가 쏟아질텐데 이 많은 비료를 어찌노. 에이 변덕 많은 놈의 날씨 점심때부터 흐렸더라도 자동차가 왔을 때 저레 창고 안에 들여다 놓았을걸…에이 제길할 것, 어、어 벌써 빗방울이 떨어지는구나.』

병준 령감이 안깐힘을 써 다섯 마대의 비료를 창고안에 들여다 놓고 나올 때다.

또다시 번개불이 번쩍 하며 컴컴한 사위를 밝혔다 사라지더니 마치 참고 기다렸다는듯 커다란 비방울이 후드득 떨어지기 시작했다.

또 하나의 비료 마대를 가슴에 불안고 창고 안으로 달리던 병준 령감은 다시 경황 없는 큰 소리를 내질렀다.

『비료가 비에 녹는다—아—』

이 때였다.

저 건너 편 행길 쪽에서 모직 양복에 장미빛 붉은 넥타이를 간뜻하게 맨 한 호남의 젊은이가 창고 쪽으로 달음박질쳐 오고 조금 뒤로 분홍 뉴똥 치마 저고리의 젊은 녀성이 머리 우에 커다란 보짐을 이고 급히 따라 왔다.

곁눈도 안 주고 멈춰 서는 일도 없이 재빨리 창고로 달려 온 청년은 대뜸 비료 마대를 어깨 우에 둘러 메고 창고 안으로 나는듯 달려 들어 간다.

뒤따라 온 녀인도 보짐을 처마 밑에 놓기가 바쁘게 청년과 같이 행동했다.

촌보를 가릴 수 없게 쏟아 붓는 비속을 비료를 건지기에 여념이 없던 그들의 작업은 약 한 三〇분 가량 지나서야 끝났다.

신혼태가 력력한 미지의 젊은 청년 남녀의 옷차림은 온통 어지럽게 더럽게 더럽혀졌고 윤택 나던 구두는 질쩍질쩍한 진흙투성이가 되여 버렸다.

병준 령감은 그 무엇인가 뜨거운 것이 목구멍을 하나 가득 올려 받쳐 가까스로 단 한 마디 『고맙수!』했을 따름 더 다른 감사의 뒤말을 잇지 못했다.

다만 그 텁텁한 두 손으로 그들의 손을 한꺼번에 뜨겁고 굳게 꽉 잡았을 뿐…

『아바이도 웬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다 우리 일이자 우리 재산인걸요.』

애젊은 녀인의 대답.

…속낙비는 차츰 뜸해졌다.

그러자 그들은 서로 눈짓을 하더니만

『아바이、우린 가 보겠습니다.』

하고 병준 령감에게 인사를 올렸다.

『아니 뭐 가다니、이렇게 물참봉이 돼 가지구 어딜 가、내 집에 가서 옷도 빨아 말리구 하루 밤 쉬여들 가게 엉? 어서…』

『아바이 우린 사정이 있어 꼭 가야 합니다.』

병준 령감은 막무가내로 그들을 붙잡았으나 마지막에 신혼 부부가 방금 잔치를 하고 하루 말미로 친정엘 다니러 간다는 사정을 간곡하게 말씀 드리자 아쉬운 대로 놓아 주었다.

그들 신혼 부부의 륜곽이 저 멀리 산굽이로 자취를 감출지 오래도록 하염 없이 감사의 정 어린 눈길을 보내며 섰던 병준 령감은 이윽하여 『아차!』하고 자신을 꾸짖었다.

『에이 이런 멍충아. 그 기특한 젊은이들에게 주소두 성함두 못 물어.』

『하긴…』

인차 그는 자신의 마음 속 꾸짖음에 변명 아닌 사실로 대답했다.

『번개 같이 뛰여 들어 번개 같이 해 치우고 번개 같이 사라지는 요즘 젊은이들에겐 언제 그런 걸 물을 새가 있더라구!』라고…

마치 병준 령감의 감심된 어조에 반향이런듯 마른 번개가 번쩍 빛났다.

이어 태양이 얼굴을 비죽히 내밀고 아까 그 젊은이들의 아름다운 마음의 넋이런듯 칠색의 고운 쌍무지개가 동천가에 나란이 비꼈다.

一九六三、四

위생지식

위를 튼튼히 하려면

박 실 종

위(胃)를 튼튼하게 하는 것은 장수의 《비결》이라 할 수 있다. 위가 튼튼하지 못 하면 유기체가 음식물을 제대로 받을 수 없고 잘 소화할 수 없으니 몸의 건전한 발육은 물론 신체의 활동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위의 질환은 일반적으로 장기성을 띠며 심한 경우에는 난치의 병으로 생명에도 위험을 준다. 그러므로 육체의 발육기이며 육체 발육을 완성하는 청년 시절에 위를 이러저러하게 혹사하거나 그 기능을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돌려야 한다. 위는 소화기 계통에 속하는 가장 큰 기관으로서 그 용적을 보통 3 릿터(어른에게 있어서) 가량된다. 위의 기능은 입과 식도를 통하여 들어 온 음식물들을 저장하고(음식물이 머물러 있는 기간은 보통 3~5 시간, 기름이 많고 소화되기 어려운 것은 6 시간 가량 걸린다.) 소화시키며 그것을 조금씩 위와 장의 경계선인 유문을 통하여 장으로 내보낸다.

위에서는 위의 고유한 운동 작용과 위액에 의하여 음식물이 소화된다. 위의 운동은 음식물을 고루 혼합하여 소화액이 잘 섞이도록 하며 그것을 장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 위액(0.4~0.5%의 염산과 페프신이라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은 위의 점막에서 나오는데 음식물을 소화시키며(주로 단백질과 지방) 균을 죽이는 역할을 한다. 어른에게 있어서는 하루에 1.5~2 릿터의 위액을 내보낸다. 위는 적으나마 소화된 영양분을 흡수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위가 어떤 장애로 자기 기능을 잘 수행 못 할 때에는 음식물을 소화할 수 없으며 따라서 영양 물질을 흡수할 수 없게 된다. 위의 질환에는 위염(음식에 체하는 것)이 흔히 많고 위 확장(위가 늘어나는 병), 위궤양(위가 헐고 패이는 병), 위암(위에 혹이 생기는 병) 등이 있다. 위의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인가? 음식물에 병균이 묻어 들어 가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는 식사 조절을 잘 하지 않고 과식, 폭음하여 위를 혹사하거나 심한 자극을 주었을 때 발생한다.

우선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거나 식사를 성급하게 하면 위'병(흔히 위염)에 걸리기 쉽다.

위는 습관에 따라서 일정한 식사 시간이 되면 위액을 내보내며 위의 운동이 활발해진다. 그 시간이 되지 않거나 경과하면 위액이 잘 나오지 않고 위의 운동도 약해진다. 그러므로 관습된 시간 내에 식사를 하도록 절도 있게 생활을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급한 식사는 잘 씹지 않고 먹는 것이며 따라서 소화에 가장 필요한 침이 나와 섞일 사이 없이 음식물이 위에 들어 간다. 그런데 위액은 침이 섞인 조건 하에서만 소화 기능을 잘 수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잘 씹지 않고 넘군다면 위는 음식물을 소화하기 위하여 과중한 운동을 하게 되며 위액을 내보내는 점막을 손상시켜 염'증을 일으키게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음식을 과식하는 경우도 위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된다. 과식하는 경우는 위가 처지거나 늘어 난다. 이렇게 되면 위에 병을 발생할 뿐만 아니라 위 아래에 있는 다른 소화 기관을' 압박하여 그의 기능도 마비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위에 심한 자극을 주지 말아야 한다. 특히 해로운 것은 술, 담배이다. 술, 담배는 뇌에 해롭게 작용한다.

그런데 뇌는 유기체의 활동을 조절하는 중추 기관이다. 뇌에 일정한 장애가 미치면 곧 소화 기관에 영향을 준다.

뿐만 아니라 술이나 담배는 직접 위를 자극하여 위의 점막을 손상시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위와 장에 있는 신경에 작용하여 그의 정상적인 활동을 장애하게 된다.

끝으로 쉰 음식이나 변질된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며 정상적인 육체 운동을 통하여 신체를 건전하게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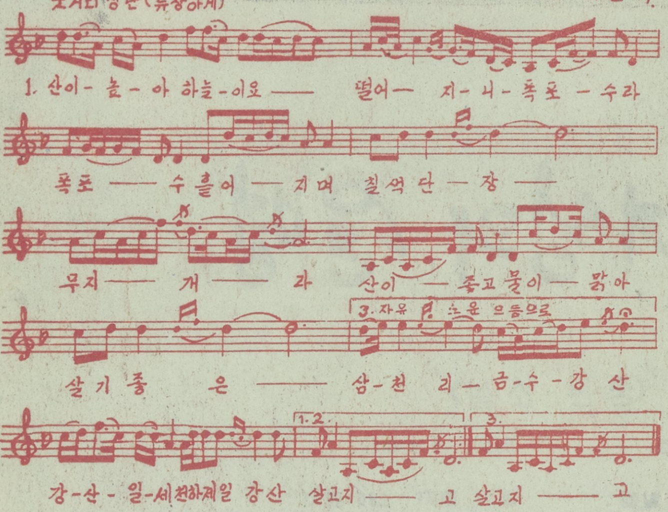
《청년 생활》 편집 위원회

발행소 민 청 출판사　　인쇄소 동 평 양 인 쇄 공 장
주소 평양시 동대원 구역 문신동　　전화 (3858—8385)
1963년 7월 11일 인쇄　1963년 7월 21일 발행
7—330393　　(값 35 전)



제일강산 우리강산

리 호남 시.
차 학철 곡.



2. 깊은산 골짝을 굽이돌아 옥수로다
크고 작은 이강 저강 막아내여 관개수라
산이 좋고 물이맑아 살기좋은 강산일세
천하 제일 강산 살고 지고

3. 앞뒤'산에 목축하며 열매따니 보배산이요
넓은들에 생명수 출렁이여 황금 파도라
산이좋고 물이맑아 살기좋은 삼천리 금수강산
자랑일세 천하 강산 살고지고



18[illegible]의 탁월한 사실주의 화가 단원 김 홍도의 그림.